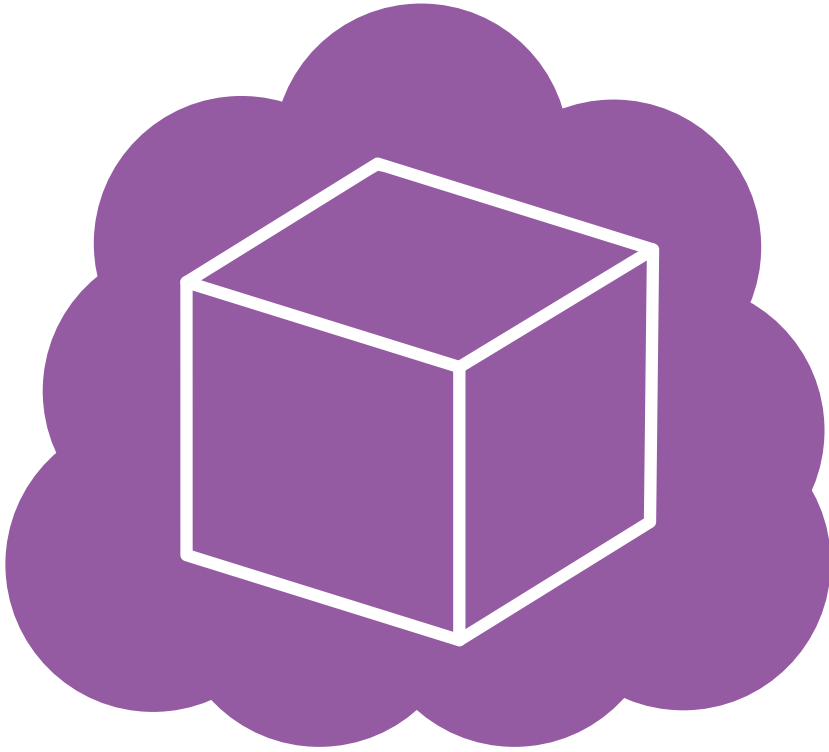


2025 꿈의극단 아산



결과자료집

CONTENTS

1. 사업 소개

- 꿈의 극단	06
- 꿈의 극단 안산	08

2. 2025 꿈의 극단 안산

- 참여인력	16
- 1기 단위	20
- 꿈의 극단 안산 활동	22
• 정규교육	24
• 특별활동	78
• 정기공연 <네모난 반짝임,넛>	90

3. 2025년을 돌아보며

- 단원들의 이야기	114
- 참여인력의 이야기	126
- 함께 나아가길 응원하며	128
- 함께한 사람들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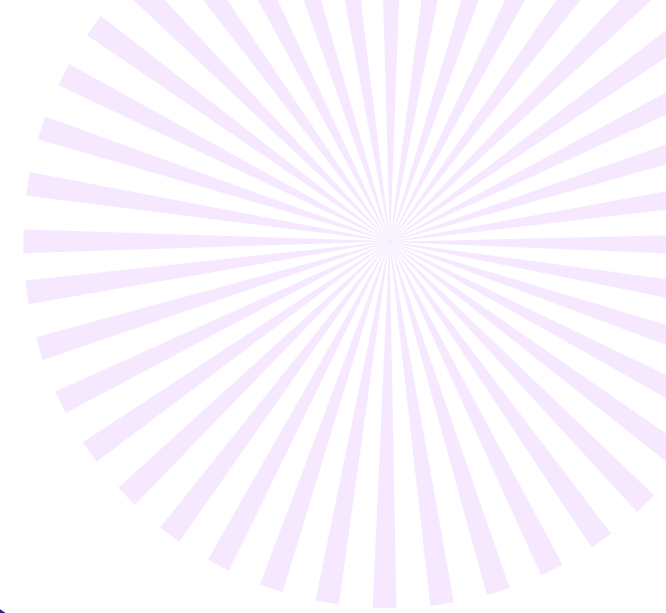
<부록>

A. 통계 및 조사

- 한눈에 보는 통계	134
- 참여단원 만족도 조사	136

B. 홍보실적

- 온/오프라인 홍보	143
- 언론 보도	147
- 영상결과물	148



사업소개

- 꿈의 극단
- 꿈의 극단 안산

06

08



“우리 안의 드라마, 무대 위의 드림러” Drama Within Us, Dreamers on Stage

아동 · 청소년 단원이 연출부터 무대 제작까지의 전 과정에 참여하며
극단 구성원으로서 입체적인 경험을 통해 예술가로 성장합니다.



꿈의 극단 Theater of Dream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꿈의 극단은
아동 · 청소년이 자기만의 생각으로 극본의 빈칸을 채우고
원작에는 없는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하며
연극적 상상력으로 나의 이야기를 마음껏 표현하는 곳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무대 위에서
단원들은 비로소 ‘나’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으며
우리의 인생과 아주 닮아있는 연극 한편을 만들어 갑니다.

연극, 뮤지컬, 전통극 등 다양한 장르를 기반으로 공동의 무대를 창작하고 교류하며
아동 · 청소년 단원들이 다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합니다.

연극과 나 창작

자기 인식 및 표현력 증대
정체성 탐색
자신감 및 창의성 증진

연극과 우리 공연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 함양
책임감과 독립심 증진

연극과 세계

무대 역량 제고 및 경험 확장

연극에 대한 지역 공동체의 흥미 유발
연기, 창 · 제작역량 향상 및
공연예술 지식의 향상
거점 고유 레퍼토리 확립 기여

2025년 꿈의 극단 1기
거점기관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꿈의 극단 안산

Theater of Dream Ansan

꿈의 극단 안산은 14세~19세의 안산시 청소년 28명과 예술가가 함께 연극 창작의 전 과정을 만들어갑니다.

단원들은 자신의 관점과 감정을 연극적 언어로 풀어내며 각자의 이야기를 존중하는 태도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또한 협업을 기반으로 한 제작 과정에 참여하면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청소년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경험과 상상은 장면의 소재로 발전하고, 직접 완성한 이야기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담은 작품**으로 구현됩니다.

이를 통해 꿈의 극단 안산은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연극 창작 기반**의 성장 모델을 구축하며, 지역 공연예술 분야에서 활용될 **새로운 레퍼토리**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확산 및 발전 방안 역시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하고자 합니다.



안산문화재단은 기존 청소년 극단 운영 경험의 강점을 바탕으로, 안산 지역 청소년의 고민과 성장을 담아내는 청소년 연극 전문 극단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에 지역 청소년이 일상의 고민과 생각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연극 기반의 표현 활동을 공연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청소년 주도의 창작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단원들은 수업 과정에서 나눈 이야기와 감정을 토대로 자신의 삶을 연극적 언어로 재구성하며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역량을 기르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교육연극 과정에서 도출된 장면과 아이디어가 무대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단원들이 직접 만든 이야기가 공연으로 이어지고 청소년 개개인의 목소리가 관객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구 개발

우리는 연극의 본질과 역할을 다시 검토하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연극 경험이 없는 참여자들도 자신의 일상을 연극으로 해석하고
창작의 과정을 통해 어떤 말로 해도 부족했던 ‘나’의 이야기를 무대로 확장해보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예술감독, 연구원, 주강사가 함께한 연구·기획 단계를 선행하며
아이들의 발달 특성, 지역성, 프로그램 구조, 공연 제작 방식 등을 다각도로 탐색해왔습니다.

창작 활동

꿈의 극단 안산은 연극을 중심으로 한 통합 예술 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스스로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고 자신만의 이야기로 작품을 만들어내는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단원들은 연극놀이와 즉흥극, 역할 만들기, 게임 기반 탐색 활동 등 다양한 연극적 접근을 경험하며
몸, 목소리, 감정, 상상력 등 배우의 기본 표현 요소를 확장합니다.

수업은 각 회차마다 주제를 탐색한 뒤 그 과정에서 발견한 단원들의 말과 행동, 아이디어를
대사와 장면으로 발전시키는 창작 실습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이후 직접 만든 장면을 바탕으로 총 35회차의 커리큘럼을 통해 단원들은 창작자로 성장하는 경험을 갖습니다.
그리고 무대에 오르는 순간 각자의 이야기는 함께 만든 하나의 드라마로 완성되어 관객과 만나게 됩니다.

상상은 현실이 되고, 나의 이야기는 우리의 공연이 됩니다.
이것이 꿈의 극단 안산이 추구하는 교육의 가치입니다.

점검 활동

프로그램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매월 1회 연구원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수업 내용과 참여자 활동 과정을 점검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연극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총 2회 실시하여
꿈의 극단 안산 비전과 교육 방향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운영에 반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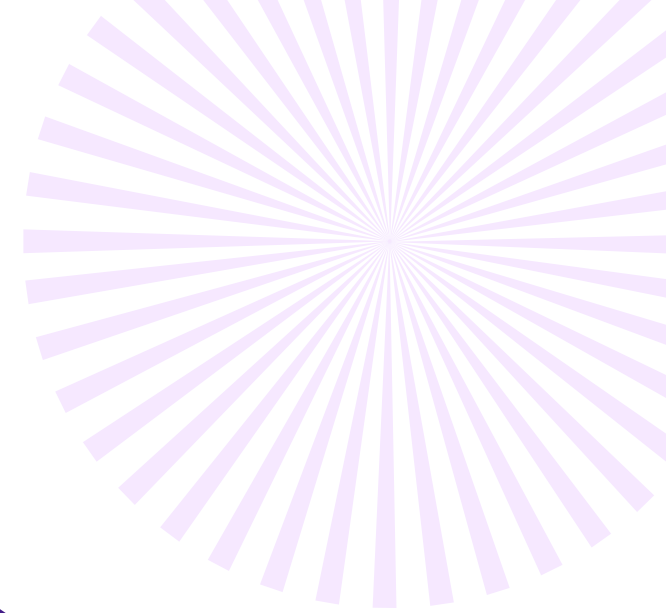
더불어 매 수업의 주요 내용을 카드뉴스 형식으로 정리하여 어떤 수업이 진행되었는지를 외부에 공유하고,
이를 통해 사업의 대외적 확산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했습니다.

~~~~~

~~~~~

~~~~~





2

## 2025 꿈의 극단 안산

- 참여인력  
- 1기 단원

16  
20



참여인력



안용세

예술감독

서울예술대학교 공연학부에서 연극(Theatre)을 전공하고,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융합교육 학부에서 교육연극(Drama Education)전공으로 석사과정을 수학했다.

시민/응용연극(Applied Theatre)을 통한 사회 변화를 주제로 실천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이자 실천가인 예술교육실천가(Teaching Artist)이다. 특히 지역과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관객 참여연극인 포럼연극(Forum Theatre)을 주력으로 진행하며, 일반 시민의 삶을 예술로 공론화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전 세대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연극적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예술교육실천가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갈 것이다.



고주영

연구원

공연예술 축제, 예술지원 공공기관을 거쳐 [안산순례길 프로젝트](2015~19), [플랜Q 프로젝트](2019~23) 등을 기획·제작했으며, 현재 [연극연습 프로젝트](2018~), 발달장애인과 함께 하는 연극 워크숍 등을 기획·제작하고 있다.

연극과 연극 아닌 것, 극장과 극장 아닌 것, 예술과 예술 아닌 것 사이에 있고자 한다. 여러 일본 현대연극 희곡을 비롯해 『나만의 독립국가 만들기』 『청소년을 살게 하는 연극 교육』 등을 번역하기도 했다.



오혜진

주강사·협력연출

연극교육가로서 18년 동안 유아부터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 중장년, 교사, 보육교직원, 학교 급식실 종사자, 요양보호사, 감정노동자, 생활동반자까지 다양한 계층을 만나며 문화예술교육을 실천해왔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성남문화재단의 성남형 교육연극 협력사업, 경기문화재단 연수단 멘토 등 여러 사업에 참여하며 지역 교육현장의 폭넓은 경험을 쌓아왔으며, 연극·뮤지컬·낭독극·무예극 등 다양한 형식의 작품 활동을 이어가는 23년 차 배우로서 예술적 실천을 교육 현장에 자연스럽게 확장해왔다.

앞으로도 연극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표현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배우의 장을 만들며, 지역사회에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예술교육을 계속 해서 이어갈 예정이다.



성산희

주강사

서울예술대학교 연기과를 졸업한 뒤 영화·드라마·연극·포럼연극 등 다양한 매체에서 배우로 활동해왔다. 현재는 연기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예술이 개인의 이해와 탐색을 돕는 교육적 가능성에 주목하며, 심리·미술·독서·글쓰기·신체 움직임·춤·러닝·요리 등 다양한 표현 방식을 연구하고 실천하고 있다.

현재 극단 ‘아해’에서 직장인 기반 시민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발굴하고 무대화하는 전 과정을 함께하며 참여 기반 예술 창작을 수행하고 있으며, 여러 나라에서 해외 어린이 공연 투어를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아동 대상 예술교육 및 공연 프로그램 개발에도 전문적 관심을 확장해 가고 있다.



이은랑

연출

서울예술대학교에서 연극을 전공하고,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공연예술을 공부했다. 연출과 배우 활동을 병행하며 극단과 교육 현장을 오가고 있고,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을 중심으로 꾸준히 활동해왔다.

안산은 물론, 전국 각지의 학교와 문화예술기관에서 연극·뮤지컬 교육을 진행하며 ‘아이들이 마음껏 실패할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다. 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두려움 없이 꺼내고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과정드라마·포럼씨어터·플레이백씨어터 등 다양한 교육연극 기법을 실제 수업에 적용해 왔다.

연출가로서는 <파랑새>, <보리피리>, <소나기>, <주술학원>, <별을 찾는 아이들> 등 여러 작품을 통해 현장 경험을 쌓아왔으며, 청소년연극제에서 지도교사상과 작품상을 수상하며 창작과 지도 양쪽에서 역량을 인정받았다.

앞으로도 연극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목소리를 발견하고, 실패를 두려움이 아닌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이 수 있도록 꾸준히 함께할 예정이다.



## 단원 모집 및 선발

5월 31일 (토) 14:00 - 18:00

안산문화재단 전시관 1층 무용연습실

1차 서류 접수 후 지원자의 참여 의지와 활동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워크숍 형식의 그룹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지원자들은 짧은 시간에도 창의적 표현력, 협력 태도, 집중력 등을 충분히 보여주었고, 평가 지표에 따라 다각적인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최종 28명의 단원을 선발하였으며 다양한 개성과 열정을 지닌 청소년들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1기 단원



권현서



김대훈



김동현



김벼리



김아린



김지연



박사랑



박지영



서연희



성유리



송예원



송채연



송호연



신선혜



신연아



신태섭



안소현



오시우



유예준



유은채



이미소



이승은



이태은



이효서



임소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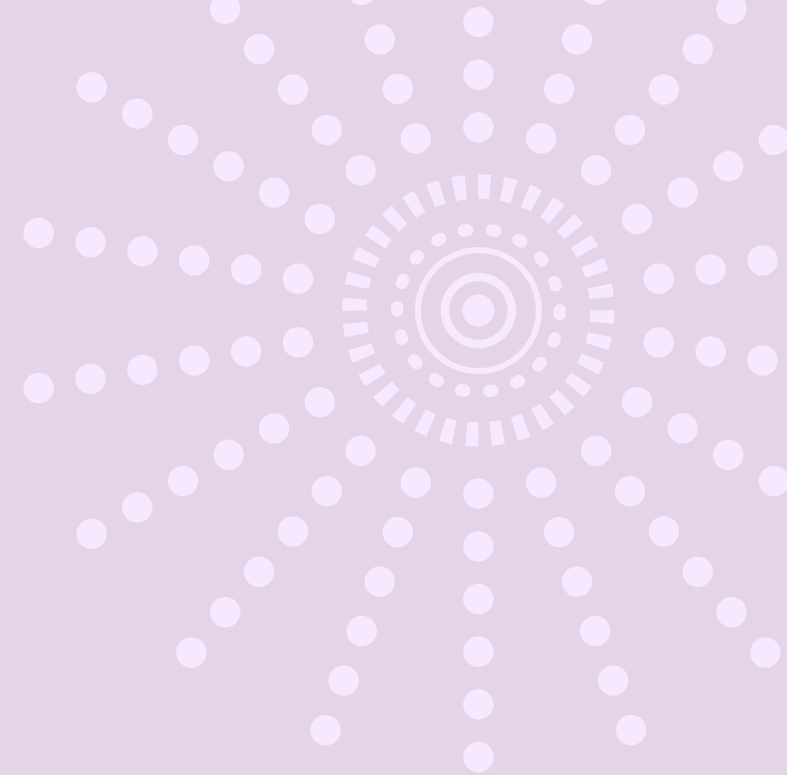
정윤영



정혜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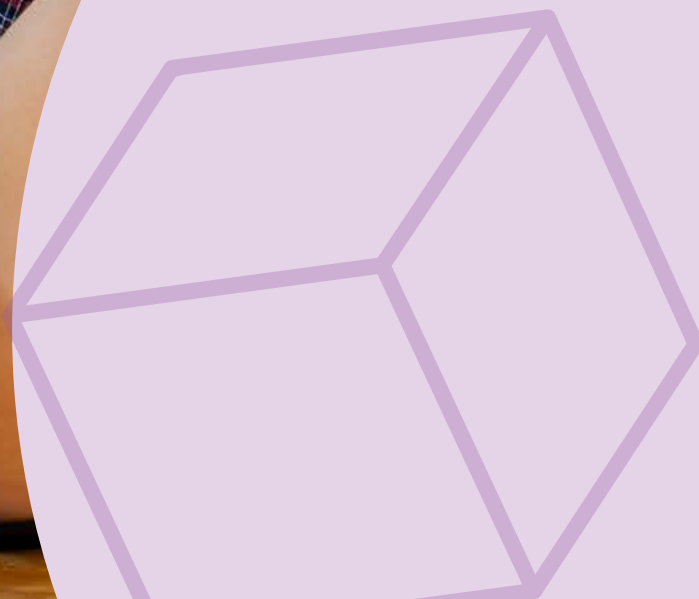


조하은



## 꿈의 극단 안산 활동

- 정규교육
- 특별활동
- 정기공연 <네모난 반짝임, 넷>
- 연계활동





## 정규 1회차

5월 31일 (토) 14:00 - 18:00

**활동장소** 안산문화재단 전시관 내 강의실

**활동주제** 나에게 소중한 것, 그리고 공간

**참여인원** 28/28명

**활동내용** 도입 | 박수 도미노, 2인 1조 페이스 드로잉 및 인터뷰

전개 | 신호에 따른 걷기 · 멈추기, 즉흥 조각상 표현(개인 · 2인 · 4인), 그룹 조각상(‘나만의 편안한 장소’)

정리 | 떠나고 싶은 여행지 및 소중한 것 탐색, 즉흥 상황 표현, 청소년 공간 탐방(‘꿈의 극단 여행’)





## 정규 2회차

6월 7일 (토) 14:00 - 18:00

**활동장소** 안산문화재단 전시관 1층 무용연습실

**활동주제** 사사로운 일상생활

**참여인원** 27/28명

**활동내용** 도입 | Circle (지난 시간 활동에 대한 나눔), 연예인 놀이  
전개 | 길, 나의 하루, 장면 만들기(하루의 기억), 장면 발표하기(함께 공유하기)  
정리 | '나의 하루'를 주제로 시 쓰기



## 정규 3회차

6월 14일 (토) 14:00 - 18:00

**활동장소** 안산문화재단 전시관 1층 무용연습실

**활동주제** 사사로운 일상생활

**참여인원** 25/28명

**활동내용** 도입 | Circle (꿈의 극단명 공모전, 배우장/부배우장 선발),  
가족사진 활동, 부사로 해보세요 활동  
전개 | '내가 돌아가고 싶었던 순간' 떠올리고 느낌을 종이에 표현하기  
페이퍼백 씨어터 (한명이 연출자가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장면으로 연출하고 나머지 단원이 협업하여 발표)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글로 정리 후 공유  
정리 | 인상 깊었던 순간, 장면에 대해 자유롭게 피드백





## 정규 4회차

6월 21일 (토) 14:00 - 18:00

**활동장소** 안산문화재단 전시관 1층 무용연습실

**활동주제** 사사로운 일상생활

**참여인원** 24/28명

**활동내용** 도입 | Circle (한 주간 느낀 점과 기억에 남은 활동 공유)

전개 | 친구 데려오기 놀이, 짝꿍 찾기

내가 원하는 친구 (내가 원하는 친구의 조건을 적고 해당 친구 찾아보기)

침묵의 공 ('나 그리고 친구' 를 주제로 1:1 서면 대화)

문장의 주크박스 ('나 그리고 친구' 에 대한 문장 3개 작성 후 공유)

정리 | 문장의 합창단 (각자의 문장을 순서대로 낭독하여 하나의 이야기로 엮음)





## 정규 5회차

6월 28일 (토) 16:00 - 18:00

- 활동장소** 안산문화재단 전시관 1층 무용연습실
- 활동주제** 사사로운 일상생활
- 참여인원** 23/28명
- 활동내용** 도입 | 1차 특별활동  
 전개 | 동작카드의 동작 내용 확인하고 직접 해보기  
 모둠별 사사로운 일상생활을 주제로 내레이션 작성하기  
 모둠별 내레이션에 담긴 동작 단어 찾고 연습하기  
 정리 | 모둠별 발표하기





## 정규 6회차

7월 5일 (토) 14:00 - 18:00

- 활동장소** 안산문화재단 전시관 1층 무용연습실
- 활동주제** 자기만의 방
- 참여인원** 25/28명
- 활동내용**
  - 도입 | Circle (한 주간 느낀 점과 기억에 남은 활동 공유), 신문지 탐색
  - 전개 | 감각 탐색 운동 놀이, '나의 사생활은 000이다.'
  - 사생활 키워드로 이미지 만들기 (신문지 활용)
  - 비밀 생각 (포스트잇에 비밀 생각 적어보기)
  - 내가 있는 곳 (캐릭터가 있을만한 공간 찾아서 글과 함께 패들렛에 공유하기)
  - 정리 | 활동소감 공유



## 정규 7회차

7월 12일 (토) 16:00 - 18:00

|      |                                                                                      |
|------|--------------------------------------------------------------------------------------|
| 활동장소 | 안산문화재단 전시관 1층 무용연습실                                                                  |
| 활동주제 | 자기만의 방                                                                               |
| 참여인원 | 28/28명                                                                               |
| 활동내용 | 도입   2차 특별활동<br>전개   체스말 선택을 통한 그룹핑<br>체스 그룹핑을 통해 나 자신 알아보기<br>정리   체스 단막극 만들어서 발표하기 |

2025  
꿈의 극단  
안산

2025. 5. 31. ~ 2025. 11. 15.  
매주 토요일 14:00 ~ 18:00  
안산문화재단 전시동 무용연습실

청소년들이 연극 교육과 공연 창작 전반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새로운  
공동의 무대를 만들어가는 청소년 극단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재단교육진흥원  
안산문화재단 꿈의 극단



## 정규 8회차

7월 19일 (토) 14:00 - 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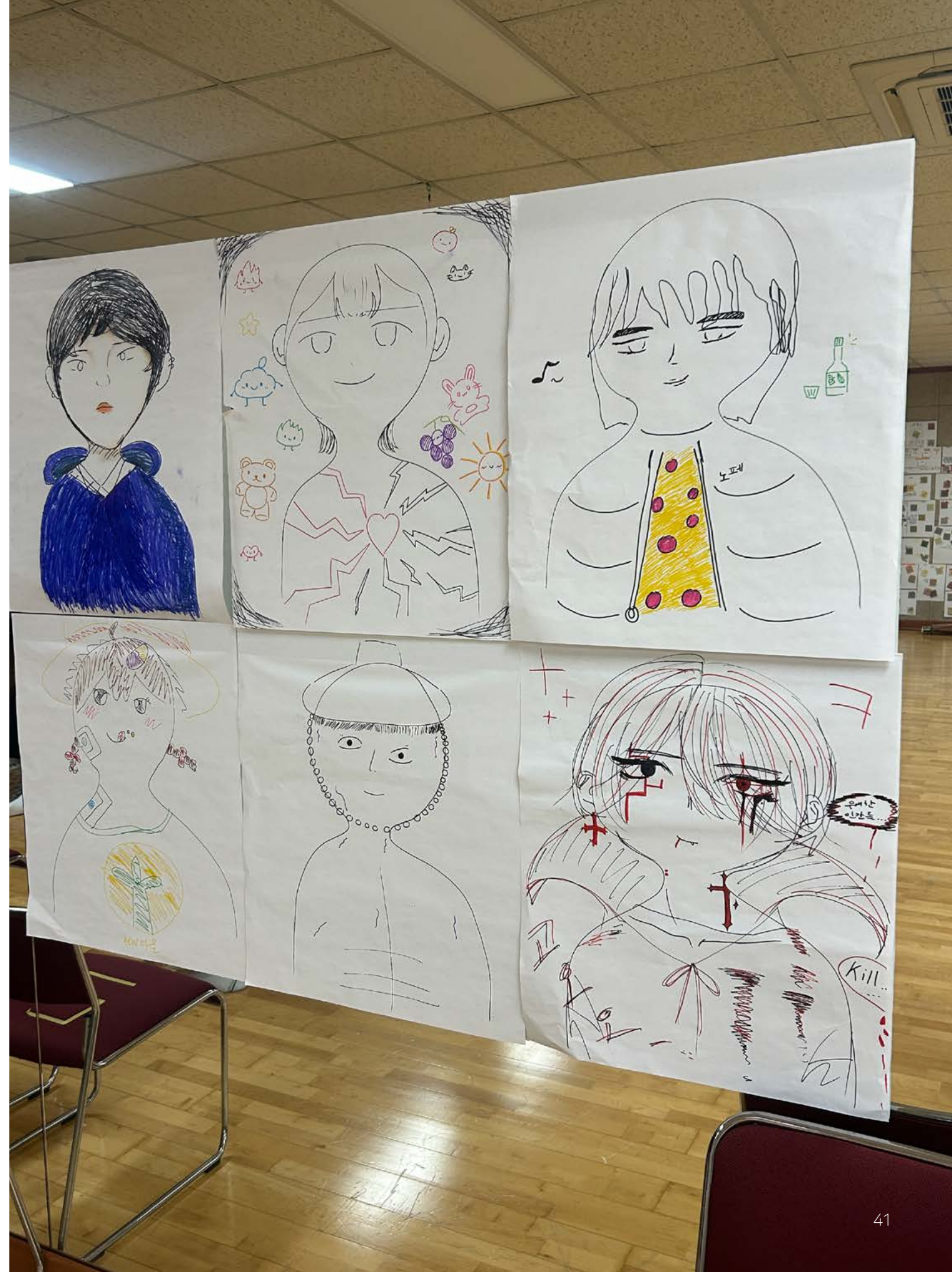
- 활동장소** 안산문화재단 전시관 1층 무용연습실
- 활동주제** 자기만의 방
- 참여인원** 26/28명
- 활동내용**
  - 도입 | Circle, 이렇게 해보세요, 공간 걷기 + 좋아하는 것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기
  - 전개 | 상황극 1<덕후의 생활>, 단원들의 덕후생활 상황극 만들기
  - 상황극 2<덕후+빌런의 등장>, 덕후 핫시팅
  - 단원들의 덕후생활 + 빌런 상황극
  - 덕후 대 빌런 배틀, 빌런에게 대처하는 우리의 모습 상황극
  - 덕후에게 하고 싶은 한 마디
  - 정리 | 릴레이 연극



## 정규 9회차

7월 26일 (토) 16:00 - 18:00

**활동장소** 안산문화재단 전시관 1층 무용연습실  
**활동주제** 자기만의 방  
**참여인원** 20/28명  
**활동내용** 도입 | 3차 특별활동  
 전개 | 가상인물 설정 및 스토리 구성  
 음악적 요소 + 연극적 요소 구성  
 정리 | 장면 발표





## 정규 10회차

8월 2일 (토) 14:00 - 18:00

- 활동장소** 안산문화재단 전시관 1층 무용연습실
- 활동주제** 경계 위의 나
- 참여인원** 26/28명
- 활동내용** 도입 | Circle, 마음 온도계: 너의 온도는 몇 도야?  
 전개 | 연애 조각상\_1인/2인/3인, 보이는 라디오 준비 (사연 작성, 초대 손님, 광고, 노래, 날씨, 춤, 교통정보 등 역할 분담 후 준비)  
 보이는 라디오 (ON AIR)  
 릴레이 연극 (첫만남, 고백, 갈등, 이별 등)  
 정리 | 활동소감 공유



## 정규 11회차

8월 9일 (토) 14:00 - 18:00

**활동장소** 안산문화재단 전시관 1층 무용연습실

**활동주제** 경계 위의 나

**참여인원** 26/28명

**활동내용** 도입 | Circle, HERO 요원 등장

전개 | 영웅이란?, 영웅 캐릭터 만들기 (가면 활용)

영웅놀이\_런웨이, 영웅파티 (킬러의 등장)

나만의 HERO 능력 찾아보기, HR능력카드 작성, 가면 만들기

HR 능력 발휘\_상황극 활용 (HR 배지 수여)

정리 | 활동소감 공유





## 정규 12회차

8월 23일 (토) 14:00 - 18:00

- 활동장소** 안산문화재단 전시관 1층 무용연습실
- 활동주제** 경계 위의 나
- 참여인원** 24/28명
- 활동내용** 도입 | Circle, 덕순이의 비밀, 그리고 퍼지는 소문  
전개 | 비밀 아지트 만들기, 비밀 아지트 탐색 및 체험  
(비밀 보장 선서 의식, 비밀 상황극 만들기)  
정리 | 비밀 연결하기





## 정규 13회차

9월 6일 (토) 14:00 - 18:00

- 활동장소** 안산문화재단 전시관 1층 무용연습실
- 활동주제** 연극창작 및 장면 연습
- 참여인원** 21/28명
- 활동내용** 도입 | Circle, 비밀 아지트 탐방하기  
전개 | 오덕학교 입학식, 각 과 체험하기, 동아리 만들기, 동아리 활동,  
히어로 능력카드로 장면 만들기, 장면 발표  
정리 | 활동소감 공유

# 2025 꿈의 극단 안산 정규교육



## 정규 14회차

9월 13일 (토) 14:00 - 18:00

- 활동장소** 안산문화재단 전시관 1층 무용연습실
- 활동주제** 연극창작 및 장면 연습
- 참여인원** 28/28명
- 활동내용** 도입 | Circle, 라디오 사연으로 장면 만들기  
전개 | 토론 기차 ('연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심화즉흥상황극 (연애 고민 사연, 토론 기차 등 이야기 활용)  
정리 | Q&A 및 활동소감 공유



## 정규 15회차

9월 20일 (토) 14:00 - 18:00

**활동장소** 안산문화재단 전시관 1층 무용연습실

**활동주제** 연극창작 및 장면 연습

**참여인원** 26/28명

**활동내용** 도입 | Circle, 전시회 관람

전개 | 히어로 캐릭터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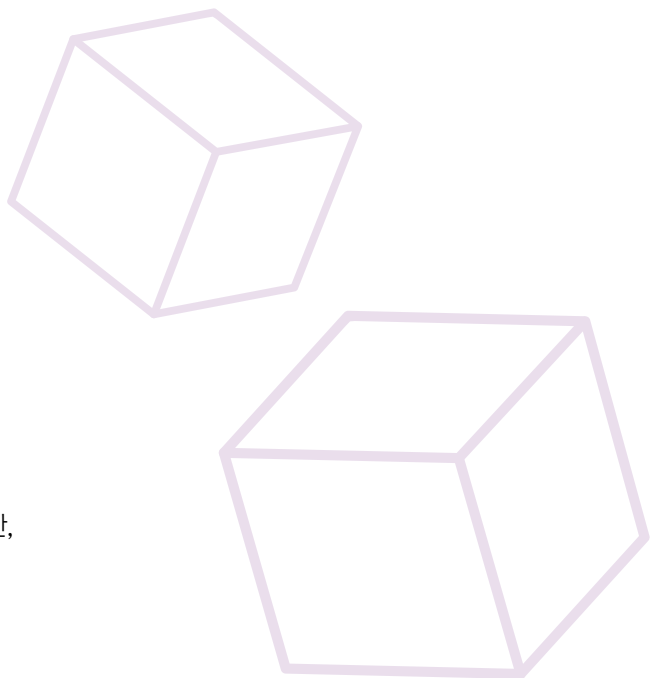
장면 만들기 (히어로의 하루, 가면을 쓰게 되는 순간,

가면을 벗게 되는 순간 3가지 요소 필수)

장면 발표

즉흥심화상황극 (히어로 능력을 활용한 해결 상황)

정리 | Q&A 및 활동소감 공유





## 정규 16회차

9월 27일 (토) 14:00 - 18:00

- 활동장소** 안산문화재단 전시관 1층 무용연습실
- 활동주제** 연극창작 및 장면 연습
- 참여인원** 28/28명
- 활동내용** 도입 | Circle, 광고 만들기  
전개 | 잠깐만~ 우리 이제 한 번 해봐요~  
(나의 의미 있는 메시지를 라디오 형식을 활용하여  
대본 작성, 라디오 진행)  
정리 | Q&A 및 활동소감 공유





## 정규 17회차

10월 11일 (토) 14:00 - 18:00

- 활동장소** 안산문화재단 전시관 1층 무용연습실
- 활동주제** 연극창작 및 장면 연습
- 참여인원** 27/28명
- 활동내용** 도입 | Circle, 대본 리딩  
전개 | 작가와 대본 Q&A, 배우지망표 작성, 특정 장면 만들기  
정리 | Q&A 및 활동소감 공유





## 정규 18회차

10월 12일 (일) 14:00 - 18:00

**활동장소** 안산문화재단 전시관 1층 무용연습실  
**활동주제** 연극창작 및 장면 연습  
**참여인원** 26/28명  
**활동내용** 도입 | Circle, 연극 이론  
 전개 | 특정 장면 만들기  
 정리 | 공지 및 활동소감 공유





## 정규 19회차

10월 18일 (토) 14:00 - 18:00

**활동장소** 안산문화재단 전시관 1층 무용연습실

**활동주제** 연극창작 및 장면 연습

**참여인원** 24/28명

**활동내용** 도입 | Circle 및 공지사항 전달, 대본 흐름 설명, 캐스팅 확정 안내  
전개 | 강사 등장 장면 연습, 캐스팅 된 역할에 따른 연습  
라디오 (광고/날씨/사연 상담), 아이돌 '셔터 오브' 춤 구간 연습  
정리 | Q&A 및 활동소감 공유



## 정규 20회차

10월 19일 (일) 14:00 - 18:00

- 활동장소** 안산문화재단 전시관 1층 무용연습실
- 활동주제** 연극창작 및 장면 연습
- 참여인원** 25/28명
- 활동내용** 도입 | Circle 및 공지사항 전달, 무대 구성  
전개 | 장면별 등퇴장 선 정리, 등장 후 조명 위치 정리, 동선 정리  
인물 감정 생각해보기, 전환 수 결정  
같은 장면에 등장하는 단원끼리 액션 및 리액션 정리 등  
정리 | 연출 노트, 활동소감 공유





## 정규 21회차

10월 25일 (토) 14:00 - 18:00

- 활동장소** 안산문화재단 전시관 1층 무용연습실
- 활동주제** 연극창작 및 장면 연습
- 참여인원** 27/28명
- 활동내용** 도입 | 스트레칭 및 공지, 무대 용어 설명  
전개 | 장면 연습 및 반복  
정리 | 활동소감 공유



## 정규 22회차/23회차

10월 26일 (일) 10:00 - 14:00 | 14:00 - 18:00 (2회)

**활동장소** 안산문화재단 전시관 1층 무용연습실  
**활동주제** 연극창작 및 장면 연습  
**참여인원** 26/28명  
**활동내용** 도입 | 스트레칭  
전개 | 전체 리허설 진행  
정리 | 활동소감 공유



## 정규 24회차 총 리허설

11월 1일 (토) 13:00 - 19:00

활동장소 안산문화재단 전시관 1층 무용연습실

## 정규 25회차 총 리허설

11월 2일 (일) 11:00 - 17:00

활동장소 안산문화재단 전시관 1층 무용연습실





## 정규 26회차 무대리허설

11월 6일 (목) 19:00 - 22:00

활동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 정규 27회차 무대리허설

11월 7일 (금) 19:00 - 22:00

활동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 2025 꿈의 극단 안산  
정규교육



정규 28회차  
정기공연  
11월 8일 (토) 12:00 - 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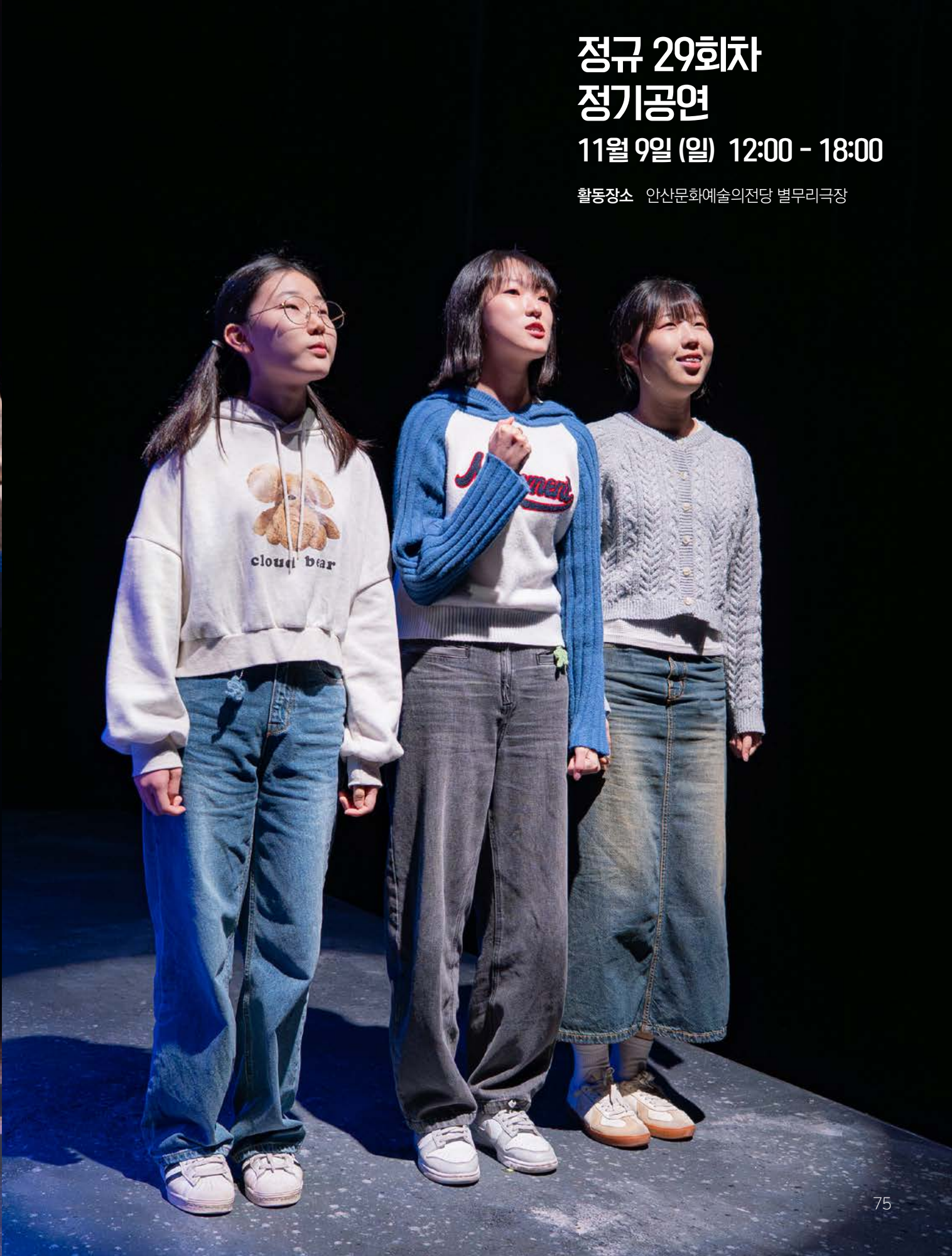
활동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2025 꿈의 극단 안산  
정규교육



정규 29회차  
정기공연  
11월 9일 (일) 12:00 - 18:00

활동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 2025 꿈의 극단 안산 특별활동



## 움직임 특강

6월 28일 (토) 14:00 - 16:00

강 사 석수정  
참여인원 23/28명  
활동장소 안산문화재단 전시관 1층 무용연습실  
활동주제 일상의 움직임을 발견하고 상상하고 구성해보기

## 시각예술 특강

7월 12일 (토) 14:00 - 16:00

강사 임상빈

참여인원 28/28명

활동장소 안산문화재단 전시관 1층 무용연습실

활동주제 체스점술 랑데부



## 소리 특강

7월 26일 (토) 14:00 - 16:00

강 사 소수정  
참여인원 20/28명  
활동장소 안산문화재단 전시관 1층 무용연습실  
활동주제 소리와 음악만으로 환경, 장소, 인물과 감정을 표현하며  
언어 너머의 공감과 존재를 탐구하는 감각 기반 창작 프로그램



# 2025 꿈의 극단 안산 특별활동



## 안산 꿈극 초대의 날

8월 16일 (토) 14:00 - 17:00

참여인원 50명  
활동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별무리극장, 전시관 무용연습실  
활동주제 백스테이지투어 (BACKSTAGE TOUR) 및 교육연극 워크숍

## BACKSTAGE TOUR

단원들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과 별무리극장을 직접 둘러보며 공연장의 구조와 운영 방식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대 리프트와 조명, 음향 장비를 체험해보고 공연 제작에 필요한 기술과 역할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또 11월 공연 장소인 별무리극장을 사전에 확인하며 무대 환경에 익숙해지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 2025 꿈의 극단 안산 특별활동

### 교육연극 워크숍

단원들의 지인들을 초청하여 진행된 이 활동은 프로그램의 취지와 진행 방식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체 중심 활동과 팀별 게임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협력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팀별로 짧은 즉흥극을 제작 및 발표함으로써 창작 과정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과 협동심을 실질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2025 꿈의 극단 안산 특별활동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청소년극 「위험한 놀이터」를 관람하며 청소년의 시각과 고민을 다룬 연극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연 전 기관 및 작품 소개를 통해 작품에 담긴 메시지와 표현 방식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관람 후 주요 장면과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연극을 바라보는 서로의 관점을 확인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단원들이 극예술을 새로운 방식으로 접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을 얻을 수 있고자 했습니다.





## 네모난 반짝임, 넷

11월 8일 (토) ~ 11월 9일 (일) 15:00 / 각 1회, 총 2회

장 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총 관람인원 수 322명

YouTube



## SYNOPSIS

“덕질이 인생의 전부라고?”

희귀 포토카드를 수집하는 비밀 클럽 ‘네모난 반짝임’.

정남, 광민, 희수, 지민은 누구보다 열정적인 ‘덕질러’ 이자,  
서로의 최애를 존중하며 반짝이던 네 명의 친구이다.

그러던 어느 날, 거래 사이트에 등장한 슈퍼 레어 포커!

정남은 그 카드를 손에 넣기 위해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아보지만 쉽지 않다.

도움을 요청하러 다른 친구들을 만나러 간 클럽은  
사라지고, 아지트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세 개의 비밀과 엮히는 마음들.

그들은 다시 반짝일 수 있을까?



# 2025 꿈의 극단 안산 정기공연



『네모난 반짝임, 넷』  
단원들은 연간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이를 장면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2025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올해의 주제인 '사생활: 사사로운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창작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이야기 가운데 단원들이 직접 선택한 네 가지 주제(덕질 · 연애 · 히어로 · 비밀)를 중심으로 에피소드를 구성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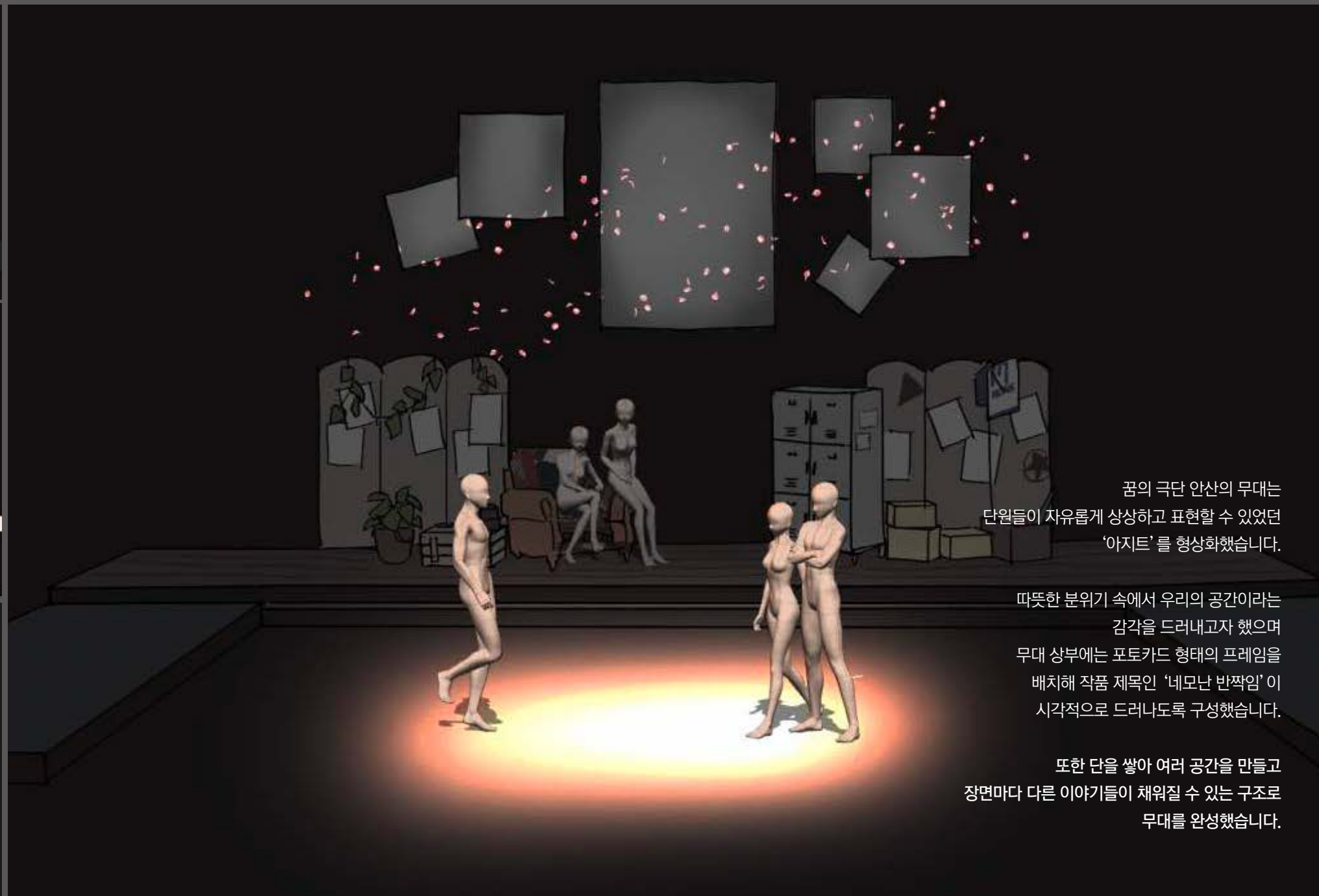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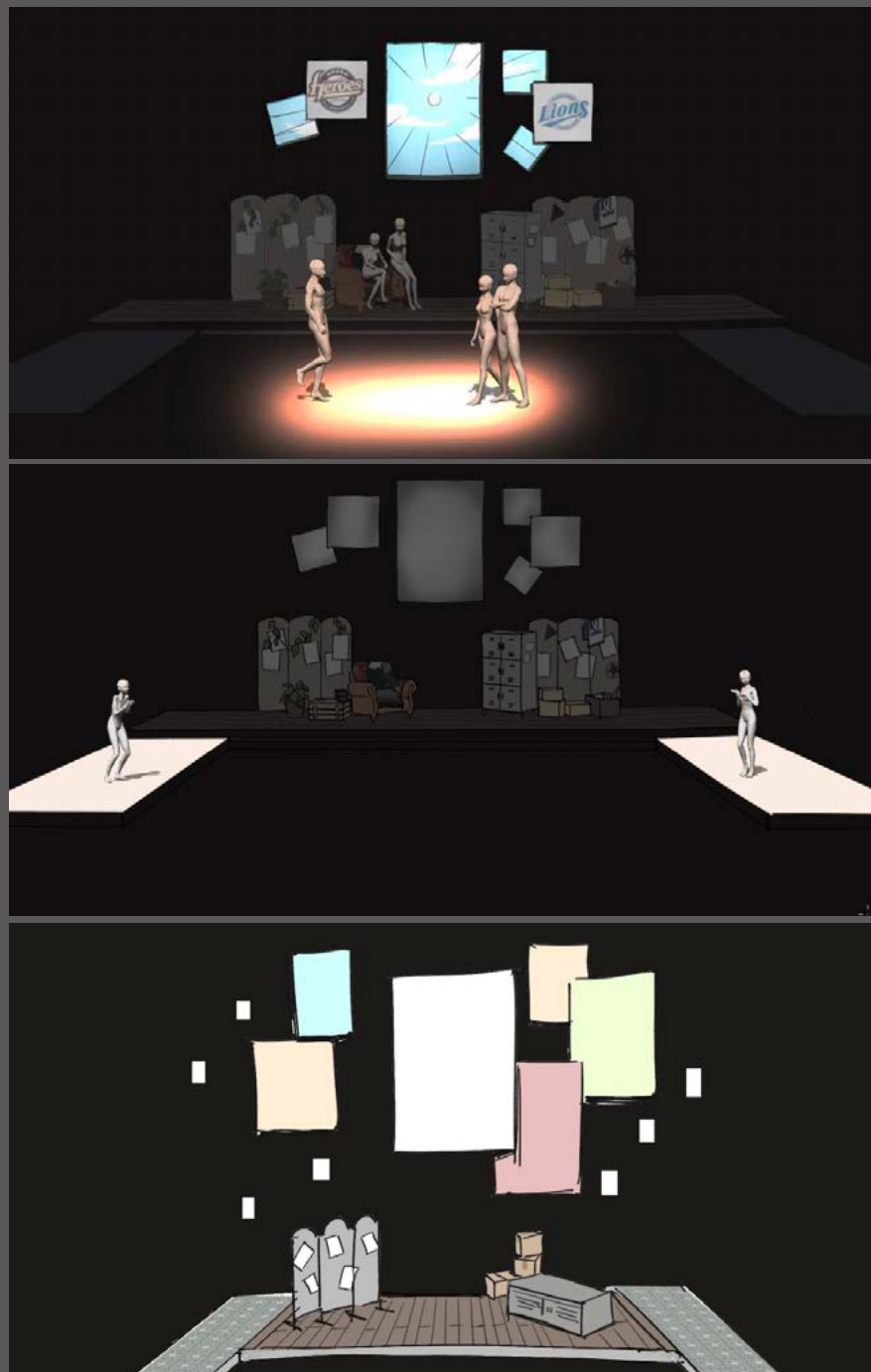


각 에피소드는 참여자 개인의 일상과 관점을 기반으로 하며 청소년이 인식하는 관계와 감정의 변화를 무대 위에서 드러냅니다.

이번 공연은 결과물 발표에 그치지 않고 교육과 창작 과정에서 형성된 참여자들의 발견과 시도가 관객과 공유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더불어 이번 창작 과정이 청소년들이 나눈 말과 감정, 경험을 작품 형태로 담아내는 기록의 장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데에도 의의를 두었습니다.







연극 제작 과정에서는 총 48곡의 음악을  
소수정 음악감독이 직접 작곡하며 공연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청소년들의 사생활을 주제로 한 연극만큼  
음악 또한 이들의 감정과 관계를 섬세하게 따라가고자 했습니다.

청소년의 사생활을 표현함에 있어 무겁거나 어두운 분위기보다는,  
밝고 반짝이는 느낌과 따뜻한 유대감, 친밀한 감정이 자연스럽게 전달되기를 바랐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적인 음악의 톤을 부드럽고 따뜻한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작품 중반에는 현실에서 주인공들이 마주한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장면과  
과거의 연극 수업 시간이 교차되며 전환되는 순간들이 등장합니다.

배우와 관객이 모두 즐거웠던 기억 속으로 잠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밝고 가벼운 분위기의 음악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반짝이는 느낌의 3박자 리듬을 활용하여 연극 수업 시간이 인물들에게  
즐겁고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음을 음악적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코믹한 장면에 사용된 곡들(잠꾸러기, 중드 배경음악, 로맨틱 장면 등)은  
우스꽝스럽고 재미있으면서도 기억에 남는 음악이 되도록 작곡했습니다.

이를 위해 트럼펫과 같이 개성이 강한 악기를 사용하거나  
중국 음계를 활용한 선율을 적용하여 장면의 유머와 분위기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음악들은 극의 흐름을 환기시키고 관객이 보다 편안하게 장면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 2025 꿈의 극단 안산 정기공연



작품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루시드 드림" 장면에서는  
꿈속에서 이상향을 현실처럼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이 곡은 몽롱하고 화사한 분위기와 함께  
한편으로는 쓸쓸하고 어두운 정서를 동시에 담아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는 꿈속의 환상이 아름답지만  
현실로 가져올 수 없다는 슬픔을 표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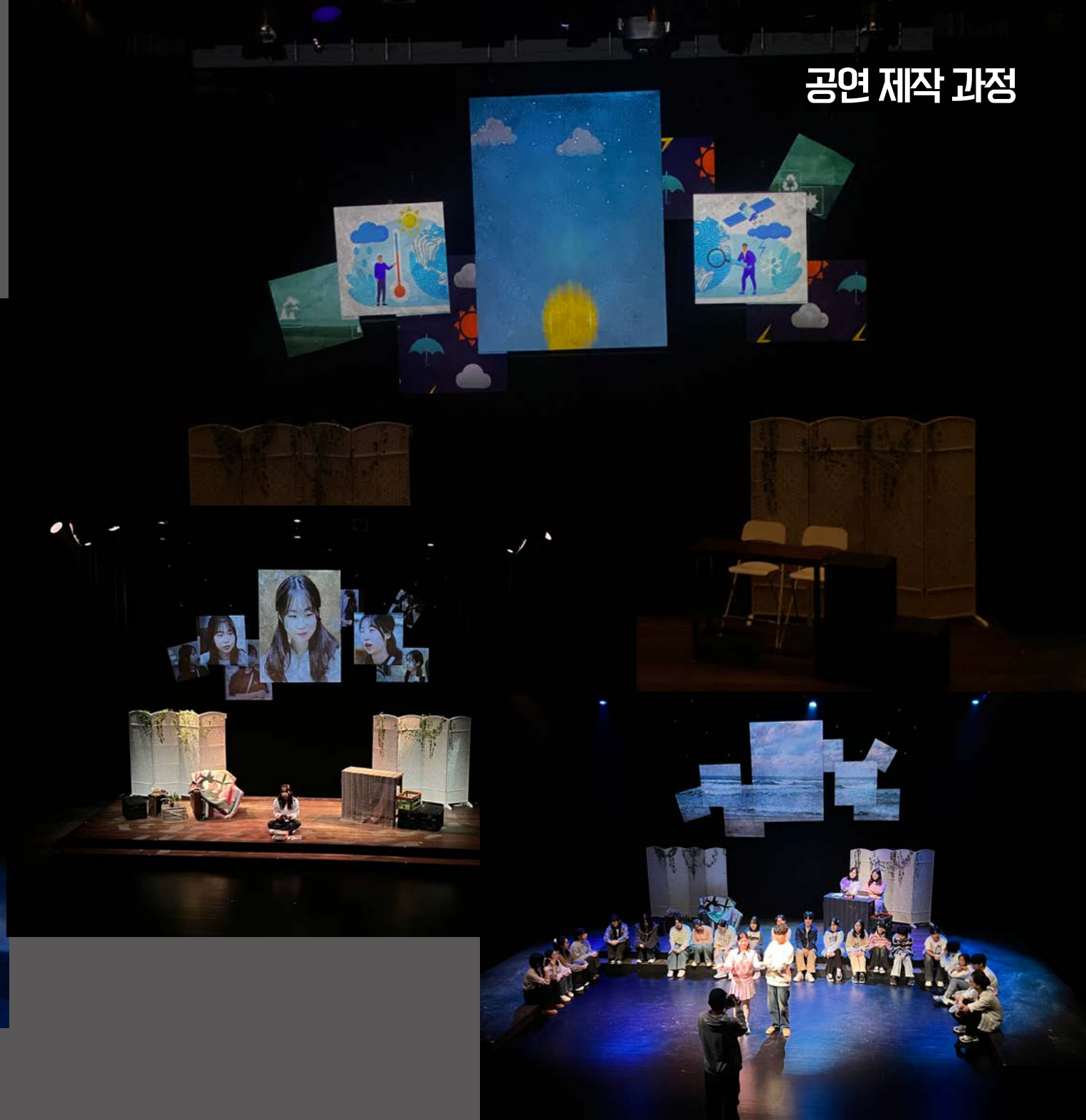
## 공연 제작 과정



관객들이 가장 열성적인 반응을 보내준 아이돌 서터오브 '오빠들'의 장면에서는  
밝고 신나는 에너지를 살리되 미드템포로 설정하여  
안무와 각 멤버들의 개성과 매력이 잘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가사 또한 작품의 주제와 어울리도록 밝고 빛나는 이미지로 통일하여  
서터오브의 긍정적이고 생기 있는 모습을 담고자 했습니다.



모험을 떠나는 듯한 감정을 중심으로 구성된 오프닝과 엔딩 장면은 인생은 정답을 미리 알 수 없고, 어떤 선택이 더 좋은 선택인지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모험과 닮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반영하여 마치 모험 게임의 오프닝처럼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게 만드는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이 음악은 작품의 시작과 끝에서 관객에게 여운을 남기며, 전체 이야기를 하나의 여정으로 인식하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무대영상은 연극 속 다양한 공간과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장면마다 변화하는 상황을 시각적으로 확장해 관객이 마치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영상의 색감과 이미지 표현은 귀엽고 재미있는 분위기를 살려 청소년들의 감성과 상상력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무대 위 이야기가 보다 생동감 있게 전달되기를 바랐습니다.



연출 이은랑  
조연출 백승광  
극작 강동호  
협력연출 오혜진  
조명 박애리  
조명 크루 정해린, 강효준  
음악 소수정  
음악 오퍼레이터 정지윤  
무대제작 장예지, 김담이



# 2025 꿈의 극단 안산 연계활동



## 2025 안산시 청소년 국제문화교류

단원들의 예술 경험이 무대 안에 머무르지 않고 더 넓은 세계로 이어지길 바라며  
단원 중 희망자와 함께 2025 안산시 청소년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연계하여 진행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2025년 11월 23일부터 28일까지 4박 6일간 라오스 비엔티안 방비엥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졌으며  
공연 쇼케이스와 교육연극 워크숍, 상호문화이해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꿈의 극단 안산이 제작한 창작극을 현지 청소년 앞에서 쇼케이스로 선보이며  
예술교육 과정과 창작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낮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도 예술은 자연스럽게 마음을 잇는 매개가 됐고  
단원들은 함께 움직이고 이야기하며 서로의 시간을 공유했습니다.





# 3

## 2025년을 돌아보며

- 단원들의 이야기 114
- 참여인력의 이야기 126
- 함께 나아가길 응원하며 128
- 함께한 사람들 132



## 단원들의 이야기 인터뷰

인터뷰 참여자

1기 단원 | 김동현, 김벼리, 김지연, 유예준, 이승은, 이태은

활동을 모두 마친 뒤, 단원들에게 그동안의 여정을 천천히 떠올려 볼 시간을 건넸습니다. 바쁜 일정을 지나 한 박자 쉬어가는 순간 각자는 마음속에 남은 장면들과 함께 느낀 점들을 글로 정리했습니다.

단원들이 직접 전하는 이 이야기들은 각자의 목소리와 성장의 흔적을 담고 있으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순간이 깊이 남았는지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 Q. 기억에 남는 활동은?

기억에 가장 남는 순간을 뽑자면 ‘위험한 놀이터’ 청소년극을 보러 갔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단원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멀리 공연을 보러 간 것이 처음이라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고, 작품 자체도 지금까지 봤던 공연 중 가장 신선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이 분야로 진로를 생각하는 친구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만한 공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연습실이 아닌 서울로 함께 이동하며 보낸 시간도 좋은 추억이 되어 제게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 김동현

백스��이지 투어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는 배우로 공연을 올렸지만, 사실 극단에 지원하기 전부터 스태프를 꿈꿔왔습니다. 중학교 때 배운 조명이 너무 재밌었고 평소에도 조명이나 음향, 무대 소품 제작, 프롬프트처럼 무대 뒤에서 보이지 않는 든든한 역할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백스��이지 투어는 무대 뒤의 많은 수고를 직접 알고 느껴볼 수 있었던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 김지연

### Q. 수업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키워드와 그 이유 (연애·비밀·히어로·덕질)

연애, 덕질, 비밀, 히어로 중 가장 인상 깊었던 키워드는 단연 히어로였습니다. 18살인 제가 ‘히어로’라는 주제로 깊게 생각해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막상 수업을 하다 보니 어릴 때 갖고 놀던 히어로 꿈이 다시 떠올라서 새롭고 즐거웠습니다. 모두가 자연스럽게 동심으로 돌아갔어요. / 김동현

역시 ‘비밀’이라는 키워드의 수업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비밀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 특히 청소년기에는 더 민감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민감할 수 있는 주제를 익명성을 통해 솔직하게 공유하고, “이런 비밀을 가진 친구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유예준

### Q. 활동을 진행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극복 방법은?

공연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동선이 조금씩 바뀌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평소 이러한 공연에 익숙한 단원들이 수업 시간 외에도 시간을 내서 함께 연습해주고 도와준 것이 큰 힘이 됐습니다. 계속 맞춰보고 알려주는 단원들과 선생님들 덕분에 힘들었지만 끝까지 잘 이겨낸 것 같아요. / 이승은

낮선 공간에서는 또래와 먼저 친밀감을 느끼기 마련이라, 처음엔 중학생 단원들과 가까워지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친한 언니’ 보다는 편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말을 많이 걸기보다 조용히 들어주고 따뜻하게 호응하며 “내 생각이 받아들여졌다”는 경험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단원들이 먼저 말을 걸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김지연

### Q. 공연 당일, 무대에서 기적의 기분은?

이게 끝이 있긴 하구나, 정말 긴 시간을 달려온 만큼 후회없이 하고 싶었어요. / 이태은

공연 당일, 긴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연날이라는 게 실감나지 않았고, 마냥 수업 받는 날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관객이 무대를 채우고 하우스 음악이 줄어들면서 점차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은 단원들은 이미 잘하니까, 나만 잘하면 돼. 실수하지 말자였습니다. / 김지연

Q. 관객들의 반응을 보며 든 생각은?

재밌어서 웃어준 건지, 형식상 웃어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연기하는 모습을 보고 웃는 모습을 보니 왠지 ‘해냈다’는 느낌이 들어 성취감과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 유예준

평소 우리가 리허설을 하는 것처럼 관객들도 리액션을 해주었는데 정말 생각지 못 한 부분에서도 큰 반응을 해주시는 게 너무 재미있어 더 열심히 공연에 집중했습니다. / 이승은

Q. 이번 활동을 통해 스스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완벽한 게 아닌 배운 게 있는 공연이 더 멋진 공연이구나 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 김벼리

혼자 공연을 올리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연을 하는 것이기에 책임감이 강해졌습니다. 원래는 일을 미루고 닥쳐오면 몰아서 하는 편이었는데, 함께 올리는 공연이다 보니 맡은 역할에 더 무게감을 가지고 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 책임감도 강해진 것 같습니다. / 유예준

Q. 연극을 하며 새롭게 알게 된 나의 모습이나 느낀 감정이 있다면?

내가 연기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 이태은

공연이 끝나고 관람한 지인들의 평을 들으니 모두 너다운 말들이라 신기하고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배역을 분석했을 때는 몰랐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저도 몰랐던 내 말투들 같아서 신기했어요. / 이승은

Q. 함께한 친구들 강사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 활동을 통해 입시 준비에도 큰 도움을 받았고, 무엇보다 제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이 프로그램을 만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꿈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좋은 선생님들, 친구들, 선배·후배들을 만나면서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큰 응원과 인정도 얻었습니다. 꿈의 극단은 제게 또 하나의 인생을 열어준 소중한 경험이었고 앞으로도 꿈을 향해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 김동현

사랑합니다. 대극장에서 뵈겠습니다. / 김벼리

끝까지 열심히 달려와준 단원들과 강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마지막 10대의 끝을 멋진 작품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25년 꿈의 극단 안산에서 한 활동들은 모두 좋은 추억으로 남았고, 그 이유는 단원들과 강사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것을 얻어갔으리라 믿습니다. / 김지연





단원들의 이야기  
활동 소감 한마디

합평회에서는 단원들이 한 해의 활동을 서로 다른 시각에서 돌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질문이 섞인 랜덤 질문지를 활용해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즉흥적으로 선택된 질문에 단원들은 자신만의 경험과 생각을 담아 답했고, 그 과정에서 평소 말하지 못했던 감정이나 작은 에피소드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이 페이지에 실린 내용은 그때의 대답들을 정리한 것으로 짧은 문장들이지만 단원들이 꿈의 극단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Q.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강사의 행동, 혹은 요구가 있었다면?

하고 싶은 역할 적어서 내는 것ियो. 선생님들이 그것을 보고 의논해서 정하는 것도 좋지만 단원들이랑 정해도 괜 찼았을 거 같습니다. / 권현서

Q. 꿈의 극단 사람 중에 나의 롤모델을 찾았는지, 이유는?

김버리입니다. 이유는 버리를 초등학교 때 보고 5년 만에 꿈의 극단에서 다시 만났는데, 아직도 저를 기억해 주고 원래의 꿈을 잊고 새로운 꿈을 찾아가는 모습이 너무 멋졌기 때문입니다. 주말이나 쉬는 날에도 자신의 꿈을 위해 학원 같은 곳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우리를 꾸준히 챙겨주는 모습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김버리가 제 새로운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 김대훈

Q. 꿈의 극단 하면서 눈물 흘린 적 있는지?

꿈의 극단 끝나고 집에서 버리랑 전화를 하는데 그때 버리가 저한테 “동현아 3년 전에 너는 관객으로 내 공연을 봤는데 3년 후의 너는 나랑 같은 공연을 하면서 같은 배우야”라고 했을 때 울었습니다. / 김동현

Q. 앞으로도 계속 만나고 싶은 단원이 있는지?

김동현입니다. 대극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 김버리

Q. 꿈의 극단이 아닌 주변 사람에게 꿈의 극단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지?

친구들한테 다들 너무 잘해주신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 김아린

Q. 꿈의 극단 2기에 추천하고 싶은 주변 사람이 있는지?

함께 지원했던 유다예 친구에게 다시 한번 추천하고 싶습니다. 연극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같이 뽐히지 못하였을 때 같이 아쉬워 했기에, 다시 한번 추천하고 싶습니다. / 김지연

Q. 꿈의 극단에서 내 얘기를 하면서 사실 거짓말(MSG)을 조금 섞은 적이 있는지?

나에 대해서 좋게 말하고 싶고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꿈의 극단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 박사랑

Q. 꿈의 극단에서 보낸 시간 중 가장 오래 떠올리고 그리워 할 시간은?

간식 시간ियो! / 박지영

Q. 공연날 가장 기억에 남는 반응은?

당시 한 초등학교 관객분이 공연 끝나고 사진 찍어달라고 하셔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 서연희

Q. 프로그램에서 내가 했던 대사, 이야기, 말 중 잊혀지지 않는 것은?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나 간다.”  
극 중 지민이의 말을 끝듯이 대답하는거라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 많이 연습해서 생각이 납니다. / 성유리

Q. 꿈의 극단 프로그램, 사람 등 제일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점은?

꿈의 극단 프로그램, 사람들 모두 좋았습니다. / 송예원

### Q. 꿈의극단퍼서니스타는누구라고생각하는지?

호연 언니랑 시우 언니요. 호연 언니는 옷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잘 아는 것 같고, 멋있는 옷도 많았어요. 시우 언니도 예쁜 옷 많았는데, 특히 공연 때 입었던 남색 셔츠가 진짜 제 스타일이었어요. / 송채연

### Q. 꿈의극단하면서제일좋았던순간은?

연극에 대해 더 자세하고 확실하게 깨달았을 때. / 송호연

### Q. 오늘은진짜가기싫다했던날과이유는?

가기 싫었던 날은 거의 매일이에요. 토요일 오후 2시까지 가야 하다 보니 항상 너무 피곤했기 때문이죠ㅠㅠ 그래도 막상 연극에 가서 재밌는 활동들을 하다 보면 피곤함은 금방 없어졌어요. / 신선혜

### Q. 꿈의극단에들어오길잘했다고생각한순간은?

사실 면접 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거 가는 게 맞나?' 싶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온 제 선택이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느껴요. 극단 사람들과 금방 친해지고, 저와 찰떡인 에테를 만나 공연도 해보면서 진로까지 바뀌었거든요. 그 순간이 아픈 몸을 이끌고서도 꿈의극단에 들어오길 정말 잘했다고 확신한 순간입니다. / 신연아

### Q. 프로그램에서다른단원이했던대사,이야기,말중잊혀지지않는것은?

대사 중에 “같이 있는 동안 늘 꿈만 같았어. 그래서 깨고 싶지 않았어.” 라는 대사가 나에게 가장 기억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꿈의 극단을 올 때나 공연을 할 때 항상 꿈만 같이 행복했고 마지막 합평회 때 같이 6개월 동안 장면을 만들고 공연을 한 사람들과 같이 있는게 행복했는데 막상 헤어질 때가 되니 헤어지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꿈에서 깨고 싶지 않다는 대사가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인 것 같습니다. / 신태섭

### Q.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제일좋아하는나만의공간을찾았는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은 무용연습실입니다. 왜냐하면 무용연습실에서 연기 연습도 하고 우리들의 추억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 안소현

### Q. 공연날무대에서관객들보면서어떤생각이들었는지?

우리의 노력의 결실이 이렇게 끝맺음 되는구나 싶었고,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긴장되었지만 관객분들의 뜨거운 호응과 반응에 긴장을 풀고 진심으로 응할 수 있었습니다. / 오시우

### Q. 이사람이라면뭐든믿고맡길수있겠다고생각하는사람은?

역시 버리형을 꼽을 수 있는데요, 제가 힘들 때 많은 격려와 지지를 해주시고, 저의 부족한 점을 최대한 제 기분을 고려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덕에 저의 역량을 더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버리 형에겐 모든 걸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유예준

### Q. 제일맛있었던간식은?

밥버거 / 유은채

### Q. 첫날과비교해스스로가가장달라진점은?

첫날과 비교하면 무대에서의 나만의 표현력이나 즉흥 연기 같은 여러 부분에서 더 활기차고 자연스러운 연기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 이미소

### Q. 이공간안에있는것중에하나만골라집으로가져간다면?

대형 스크린 모니터요. / 이승은

### Q. 내가꿈의극단공연을연출한다면이렇게하겠다,생각했던것이있다면?

지금 연출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 같은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광민이와 정남이의 그 후 이야기를 더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예요. 모닝콜 분량도 조금 더...? / 이태은

### Q. 꿈의극단에괜히들어왔다고생각한순간은?

지각할 뻔한 적이 많은데 지각을 안 하려고 택시를 많이 탔는데 택시비가 꿈의 극단 들어오고 나서 너무 많이 나와서 꿈의 극단에 괜히 들어왔나? 잠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 이호서

### Q. 꿈의 극단 하면서 진짜 꿈이 생겼는지? (직업이 아니어도 무방)

중학교 때 부터 배우라는 직업을 꿈꿨지만 확신이 별로 서지 않았는데 꿈의 극단을 하고 배우라는 직업의 진로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 임소희

### Q. 연극은 이런거구나..느낀 순간이 있었는지?

단원들이랑 짧은 시간 안에 연극을 만들고 발표했을 때 연극은 이런거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시간이 짧아도 연극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 정윤영

### Q. 제일 친해지고 싶었던 사람과 친해졌는지? 어떻게?

친해지고 싶은 사람은 딱히 없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연스럽게 다같이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정혜윤

### Q. 꿈의 극단을 하면서 발견한 나도 몰랐던 사실은?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 조하은



# 나에게 꿈의

단원들은 지난 안문재 PD와의 인터뷰와 함께 진행된 롤링페이퍼를 통해 자신에게 꿈의 극단이 어떤 공간이었는지 짧은 문장으로 남겼습니다.

우리의 꿈!  
이루는 집

쉼터

꿈을 담은 계기 ♥

과정이다

성장과정

보석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놀이터

편안함 ♥

즐거움

새로움

일주일 중 가장 기대되는 시간

# 극단이란 ?

기대가 시작되는 토요일, 편안함, 잠처럼 느껴지는 시간 등 각자의 표현은 프로그램이 이들에게 어떤 감정과 의미로 자리했는지를 자연스럽게 보여줍니다.

재밌는 일이 가득한 곳!

나를 진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곳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곳 ★ 최고! ★

행복이다

나를 응원해주는 것

집

토요일이 기대되는 이유 ♥

## 참여인력의 이야기

### 안 용 세 / 예술감독

안산문화재단에서 청소년 극단과 함께한 지난 1년은 제게도 단원들에게도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생활’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 교육연극을 통해 단원들은 매주 스스로 참여하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작은 아이디어 하나까지 공연으로 연결하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단원들과 함께 학교 안팎에서 겪는 관계, 진로 고민, 세대 간 소통, 관심사 등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이를 무대 장면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은 늘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교육팀과 창작팀이 함께 체계적으로 작품을 준비하며 공연장과 재단의 협력이 더해질 때 단원들의 책임감과 성취감은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꿈의 극단 안산에서는 배우이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생각하고 참여하도록 독려했으며 분야별 전문가 특강과 공연 관람을 통해 예술가로서의 경험과 성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단원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무대 위에서 확장시키는 역할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원들은 자신의 삶을 연극적으로 해석하고 사회 변화를 꿈꾸는 주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 경험이 단원들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오래 남는 시간으로 자리하리라 믿습니다.

### 고 주 영 / 연구원

7개월 간 한 달에 한두 번씩 안산을 찾았습니다.

매번 연습실에 가까워질수록 바깥에서부터 시끌벅적, 우당탕탕, 하하호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문을 열어보면 누군가는 한 구석에서 조용히 자기시간을 갖고 있었지만, 누군가는 미소로, 누군가는 큰 웃음으로 이 시간을 기대하고 있다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프로그램 구성이 좀 엉성해도,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도, ‘어린’ 단원들의 적극적인 태도, 다정한 마음이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낮선 사람을 만나고, 낯선 감정을 느끼고, 낯선 움직임과 표정을 해보고, 낯선 자신을 발견한 이 시간이 단원들, 함께했던 어른들, 그리고, 저의 앞으로의 삶 속에서 문득 떠오르는 순간이 있기를.

### 오 혜 진 / 주강사

예술교육가 에릭 부스(Eric Booth)는 ‘티칭아티스트(Teaching Artist)’의 전문성은 완벽한 지도안이나 수업자료에서 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누구인가에 대한 속성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꿈의 극단 안산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연극의 본질, 그리고 청소년들과 다양한 드라마를 펼치는 티칭아티스트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참여한 사람들 덕분에 저도 한 뼘 성장하였고, 언제든 준비가 되어있는 아이들 덕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연극의 힘을 믿습니다. 저를 믿고, 상대를 믿으면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꿈의 극단 안산에서도 만났습니다. 너무나도 의미있게.

### 성 산 희 / 주강사

꿈의 극단 안산에서의 활동은 청소년이 가진 감각과 시선이 얼마나 본질적인지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단순한 학습자가 아니라, 이미 스스로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교육은 그 힘을 깨우는 과정이며, 삶을 살아내는 방법을 서로 연결하는 작업임을 매 순간 느꼈습니다.

수업 안팎에서 만들어지는 진실한 관계는 청소년들이 안전함과 친밀감을 느끼고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는 교육자의 태도에서 비롯되며, 어른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소외시키지 않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을 교육하는 어른 역시 자기 인식과 타인과의 소통에 대해 지속적으로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느리더라도 진실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교육예술이 지속될 수 있는 길이며,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과정을 동행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그들의 목소리가 건강하게 확장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노력하고자 합니다.

### 이 은 랑 / 연출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고,  
잘하지 않아도 괜찮은 분위기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연극이 무언가를 잘 해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며 경험할 수 있는 과정으로 단원들 안에 남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꿈의 극단 안산이 이러한 방식으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품을 수 있는 공간으로 꾸준히 이어지기를 바라며 모두에게 반짝이고 소중한 순간으로 오래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 2025년 꿈의 극단 안산 단원들에게

고 주 영  
공연예술 독립기획자  
연극연습 프로젝트 대표

오늘은 기온이 훅 떨어졌네요. 마지막으로 볼 때만 해도 아직 그래도 가을, 이라고 우길 수 있었는데, 이젠 뻘박 겨울입니다.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만난 합평회날, 일정이 다 끝나고도, 서로 헤어지기 싫어 울다가 웃다가 연습실을 떠나지 못했던 단원분들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러다가 다 같이, 아니면 삼삼오오 중앙동으로 뒷풀이라도 갔으려나요?

그 후로 빠르게도 한달이 흘렀네요. 그간 수능 성적이 나오기도 하고, 길고 긴 방학이 다가오기도 하고, 그 전에 뭔가 시험도 있겠죠? 혹시 문득 꿈의 극단에서 함께 했던 시간이 떠오른 적은 없었는지 궁금해요. 떠올랐다면 어떤 순간에 어떤 장면이 떠올랐을까? 다른 학교 다니는, 울며불며 헤어짐을 아쉬워했던 단원들과 계속 연락도 주고받고 주말이면 만나기도 하고 있다면 기쁠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내용의 연극을, 어떤 형식으로, 언제, 어디서 공연할까, 를 계획하는 기획자로 일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어떤 프로페셔널한, 혹은 유명한 배우나 연출과 작업을 할 때보다, 여러분 같은 청소년이나 동네에 사시는 어르신들, 때로는 장애를 가진 분들이나 사회에서 ‘정상’이라고 정해놓은 틀과는 벗어나 있는 분들이 하는 연극을 볼 때, 훨씬 더 ‘내가 연극의 길을 택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합니다. 정말 평범한 것처럼 보이는 삶도 시간을 들여 가만히 들여다보면 흥미롭고, 아름답지 않은 삶이 없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무대 위에 직접 올라 들려주는 자기 이야기에는 힘이 있어요. 유명한 작가가 쓴 대사를, 탄탄한 연기이론을 바탕으로 매끄럽게 연기해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살아있는, 그 누구도 대신 할 수 없는 힘.

저는 그런 힘을 이번 꿈의 극단에 참여하면서 매번 느꼈습니다. 비록 자주 같이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상투적인 질문을 한다고? 이렇게 어렵게 질문해서야 어떻게 답을 해?’라고 내심 생각했던 프로그램과 질문도 솔직히 있었는데(강사님들, 미안...), 여러분들이 고민한 답들, 들려주는 이야기들은 하나 같이 다 흥미롭고, 생생하고, 아차 싶은 것들이 많았거든요. 한가지 답을 들으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궁금한 게 생각났는데 다 물어보지 못했던 게 아쉬워요.



교박 6개월 간 중간에 사라지지 않고, 모두가 함께 마지막 토요일을 맞이한 것도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토요일 오후라면 정말 많은 유혹이 있었을 텐데 이 친구들이 빼놓지 않고 열심히 연습실로 오게 하는 원동력은 또 뭘까, 궁금하기도 했고요. 앞으로 프로 연극인이 되고 싶거나, 연극이 너무 좋아서, 혹은 프로그램이 너무 훌륭해서 개근한 분들도, 물론, 있었겠죠. 그런데 한달에 한번씩 여러분이 시작 전에, 쉬는 시간에 끝나고, 어떻게 모여서 노는지를 본 저로서는 여러분을 이렇게 모이게 한 것은 ‘연극’을 빌미로 한 동료들과의 관계가 아니었을까, 추측해봅니다. 나이도, 학교도, 연극경험도, 관심사도, 참여동기도 제각각인 단원들이 처음엔 이런저런 기준으로 무리짓다가 그 무리의 구성원이 바뀌기도 하고, 무리와 무리 사이에 그어졌던 선이 사라지기도 하는 광경을 보고 말았거든요. 서로에게 공평한 관계, 선긋지 않는 관계를 만들어준 단원분들의 당당함과 다정함, 정말 멋있었습니다.

유독 등퇴장도 많고, 역할도 다양하고, 동선도 복잡했던 공연 연습과정은 모두들 어땠을까, 이번에 꿈의 극단을 통해 만난 ‘어른’ 연극인들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졌을까, 다음에 여행을 떠날 땐 버려야 할 짐의 순서가 달라졌을까, 자기 안에서 또 어떤 히어로를 발견했을까, 분명 (어른들 모르게) 발생했을 연애사건들의 결말은 어떻게 지어졌을까, 요새 신작 종드 중엔 뭐가 재미있나, 궁금한 게 정말 많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게 되면 2025년 11월 18일부터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물론 ‘연극’으로요.

또 새롭게 밝아올 한 해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웃기만 하면 좋을 텐데, 울 일도, 화날 일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 정도 짬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도 힘들고 화나고 끓어오르는 감정과 에너지를 풀어낼 숨구멍 하나씩은 꼭 마련합시다. 내년 에 이어질 꿈의 극단, 안산도 그 중 하나의 선택지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또 많은 대화거리, 좋은 연극의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잘, 즐기며 살아남아 봅시다.

## 꿈의 극단 안산 ‘유스씨어터(Youth Theatre)로의 그 첫 향해! 그 시작을 응원하며

김 병 주  
PRAXIS 예술/교육감독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꿈의 극단’ 사업의 출발은 2010년 ‘꿈의 오케스트라’라는 프로젝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클래식 악기 연주 기회를 접하기 어려운 평범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제공한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El Sistema)’ 프로그램을 우리 방식으로 접목한 것이었지요. 국내외의 많은 음악가와 예술교육가들의 노력으로 꿈의 오케스트라가 서서히 정착하고, 그 이름을 따서 ‘꿈의 무용단’ 사업과 ‘꿈의 극단’ 사업까지 탄생하였지요.

우연히 ‘꿈’이라는 이름을 모티브로 여러 예술교육 사업이 생겨난 것이지만, 저에게 있어서 ‘꿈의 극단’은 또 다른 의미와 사연이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알리고 강조하고 호소하며 혼자 꿈꾸어 온 저만의 ‘꿈의 극단’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지역 예술기관을 기반으로 좋은 어른들이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 주고, 그 안에서 지역의 청소년들이 만나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스스로 주인이 되는 연극을 만들어 행복하게 소통하고 성장하는 그런 극단 말입니다. 공부로 배우는 예술교육이 아니라, 체험하며 발견하는 예술교육이 있는 곳, 진정한 청소년 연극인 ‘유스씨어터(Youth Theatre)’를 꿈꾸어 왔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청소년’에 그리 관심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른의 시각으로 ‘중고생’ 혹은 ‘미성년자’라는 표현이 흔하게 쓰인 이유입니다. 더 이상 어린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직 어른도 아닌, 그런 중간자인 청소년들만의 시간과 공간, 목소리와 몸짓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꿈의 극단 안산’의 올해 첫걸음은 더욱 몽클하고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열정 넘치는 예술가와 애정 가득한 행정가로 구성된 이 좋은 어른들이 울타리가 되고, 자신의 선택으로 기꺼이 참여한 안산의 청소년들이 연극과 예술을 통해 긴 시간 동안 서로를 알아가고 함께 힘을 모아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감동은 그 어떤 유명 배우들의 연극에서도 보기 힘든 멋진 떨림과 깊은 울림을 던집니다.

‘꿈의 극단 안산’ 청소년 단원 여러분의 근사한 첫 향해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켜보고 응원해온 한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뜨거운 박수와 벅찬 감사의 환호를 보냅니다. 제가 오랫동안 지녀온 꿈이 허황되지 않았음을 여러분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 유쾌하고, 더 진지하며, 더 깊어질 여러분의 더 많은 이야기를 기대합니다.

함께한 사람들

안산문화재단

- 대표이사 김태훈
- 문화예술본부장 김진희
- 사업총괄 지역문화부장 황우자
- 기획·운영 지역문화부 김민정
- 코디네이터 지역문화부 박민지
- 운영지원 지역문화부 김은정, 하혜진, 최푸름
- 무대예술부 정홍순, 이승훈, 김빈규, 강수룡, 김지호, 최영환

참여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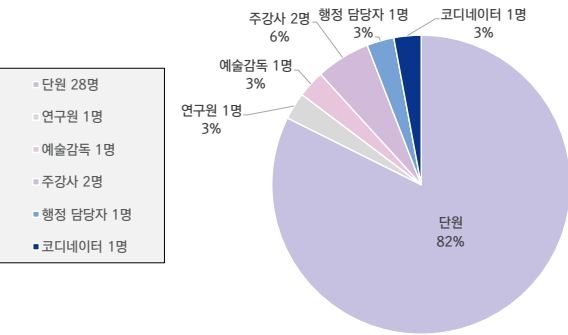
- 예술감독 안용세
- 연구원 고주영
- 자문 김병주
- 주강사 오혜진, 성산희

부 록 A. 통계 및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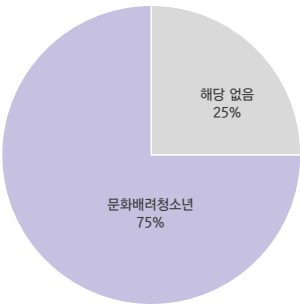
- 한눈에 보는 통계 134
- 참여단원 만족도 조사 136

참여자

총 참여인원 3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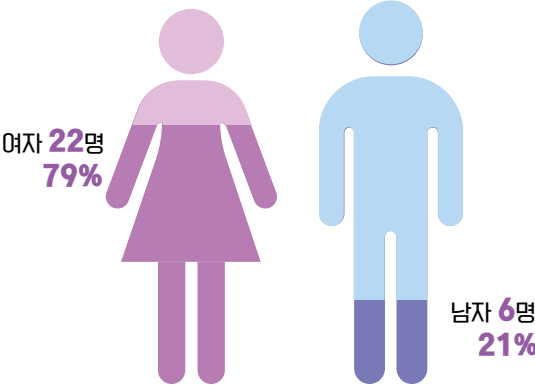


문화배려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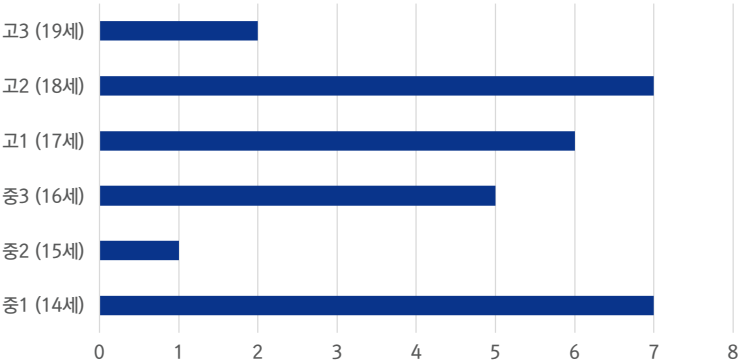
성별 비율

남 6명, 여 2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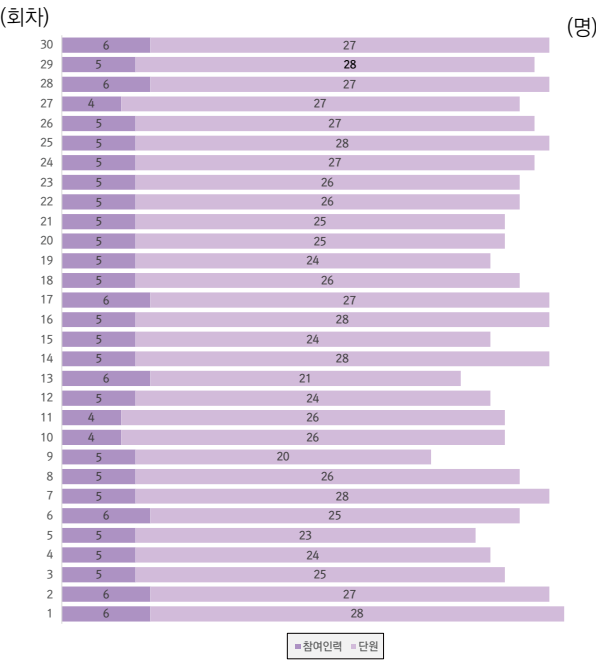
연령별 비율

- 고3 (19세) 2명 7%
- 고2 (18세) 7명 25%
- 고1 (17세) 6명 21%
- 중3 (16세) 5명 18%
- 중2 (15세) 1명 4%
- 중1 (14세) 7명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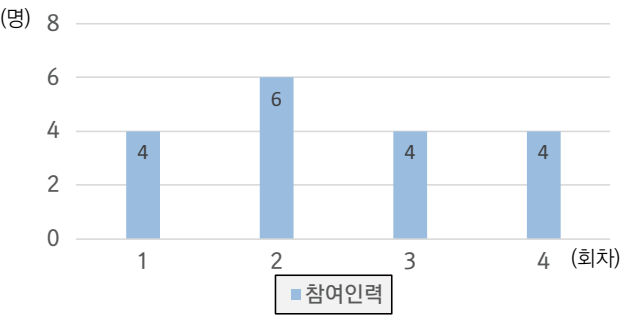
회차별 인원 집계

정규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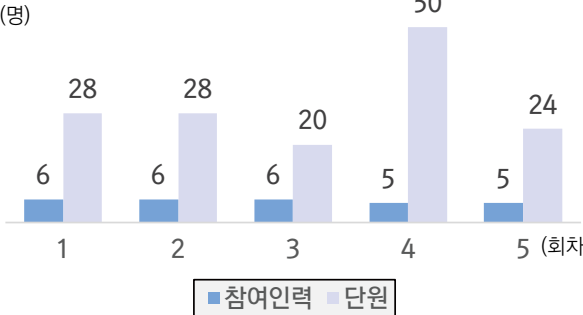


총 30회차  
926명  
91.9% 평균 출석률

연구개발 \*참여인력 단독



특별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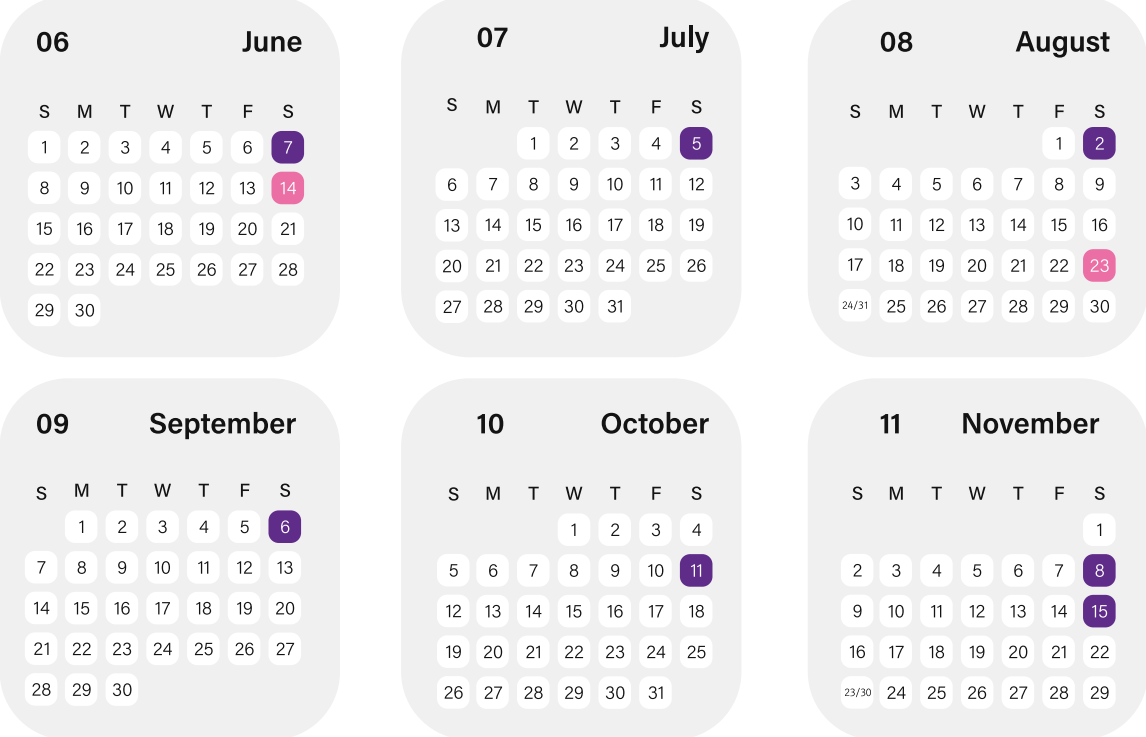
총 5회차  
178명  
89.6% 평균 출석률

정기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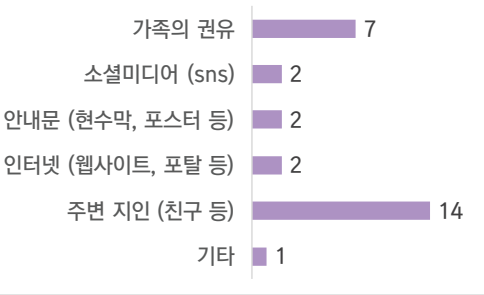


■ **모니터링** 6~10월 각 1회, 11월 2회씩 총 7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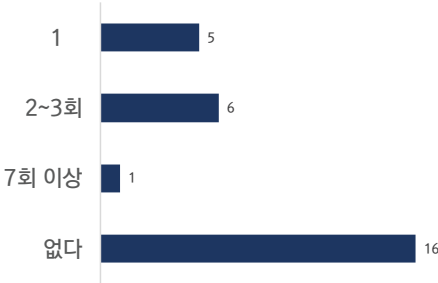
■ **전문가자문** 6월, 8월 1회씩 총 2회 / 참여인력 전체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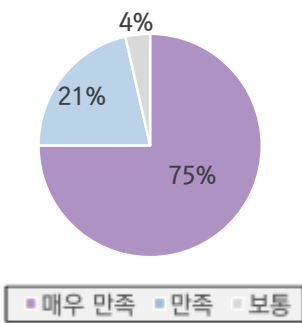
꿈의 극단 프로그램 참여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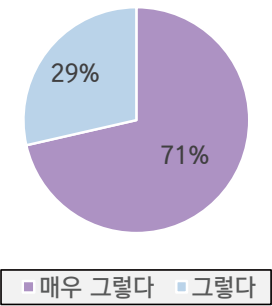
꿈의 극단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 참여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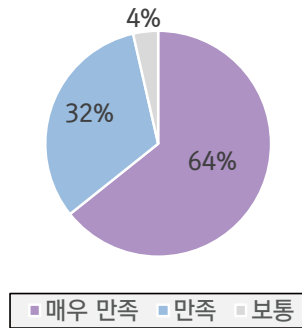
강사진의 전문성과 지도방식에 만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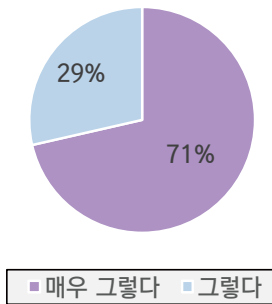
교육 내용과 활동이 흥미로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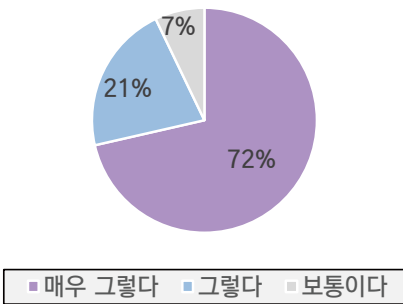
공연 결과물에 만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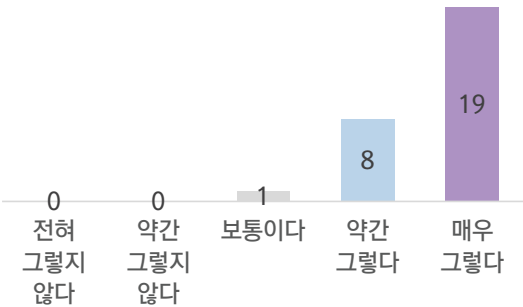
꿈의 극단 안산 프로그램 운영이 원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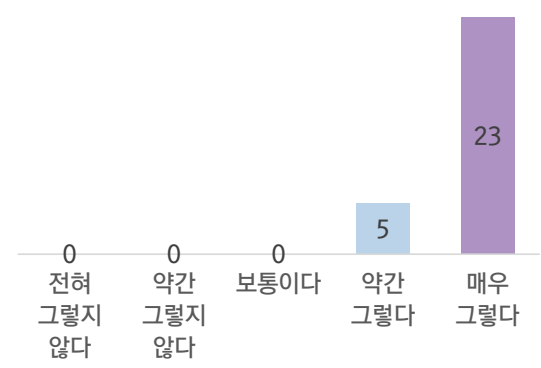
참여 시간 대비 교육 효과가 충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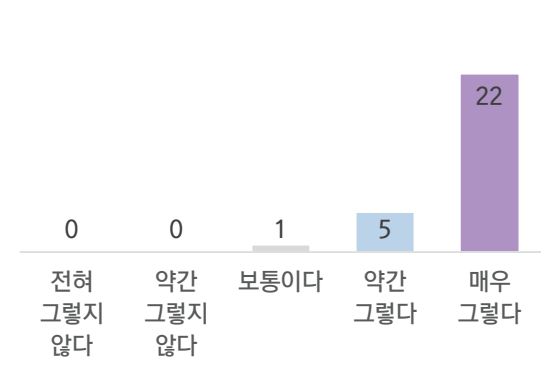
예술적 역량 (연기, 무대 이해 등)이 향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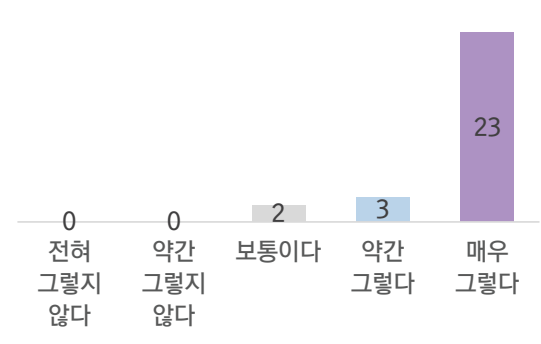
협업 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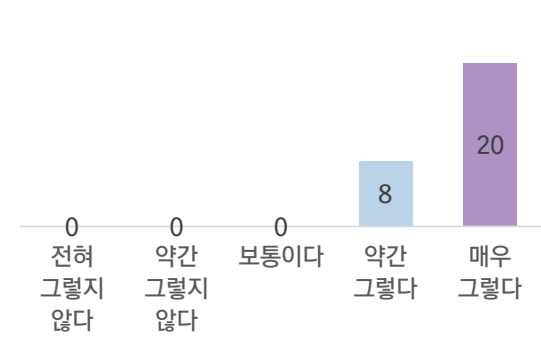
자신감이 향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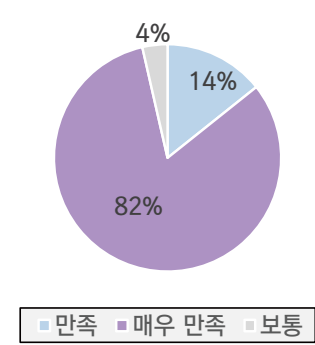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거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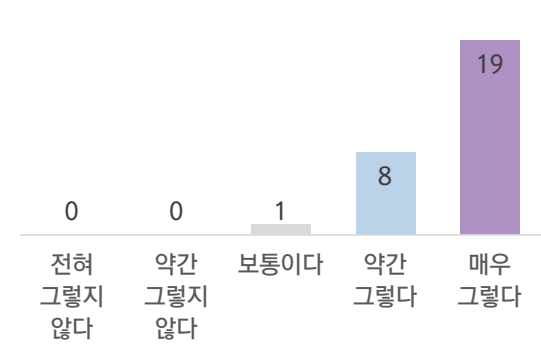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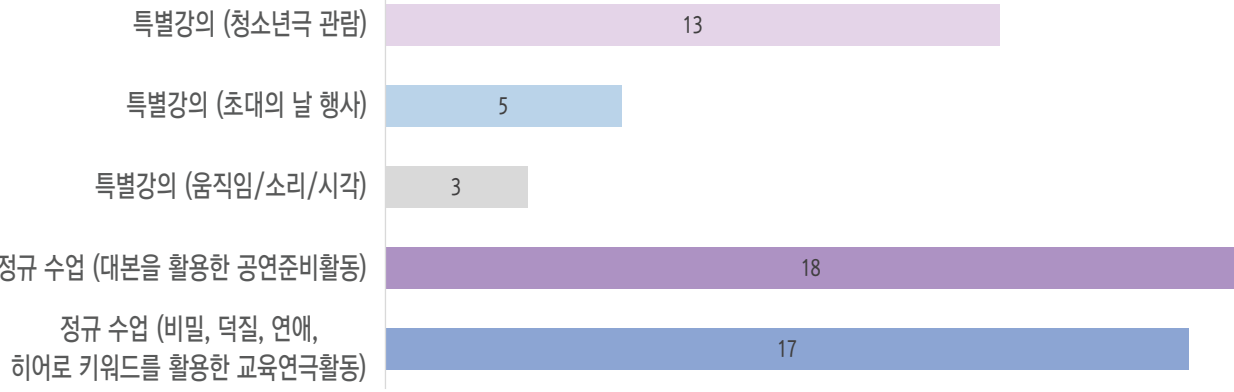
꿈의 극단 안산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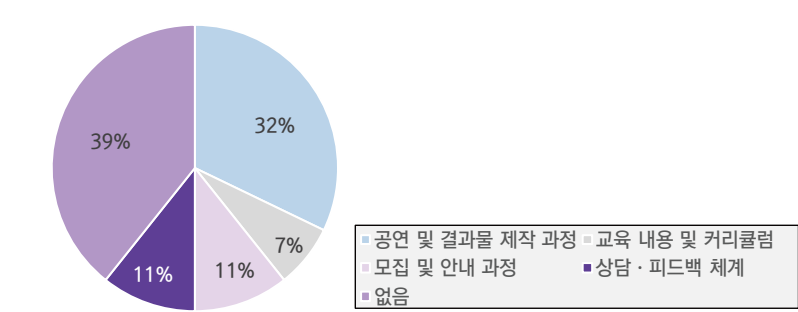
다음 꿈의 극단 안산을 참여하거나 친구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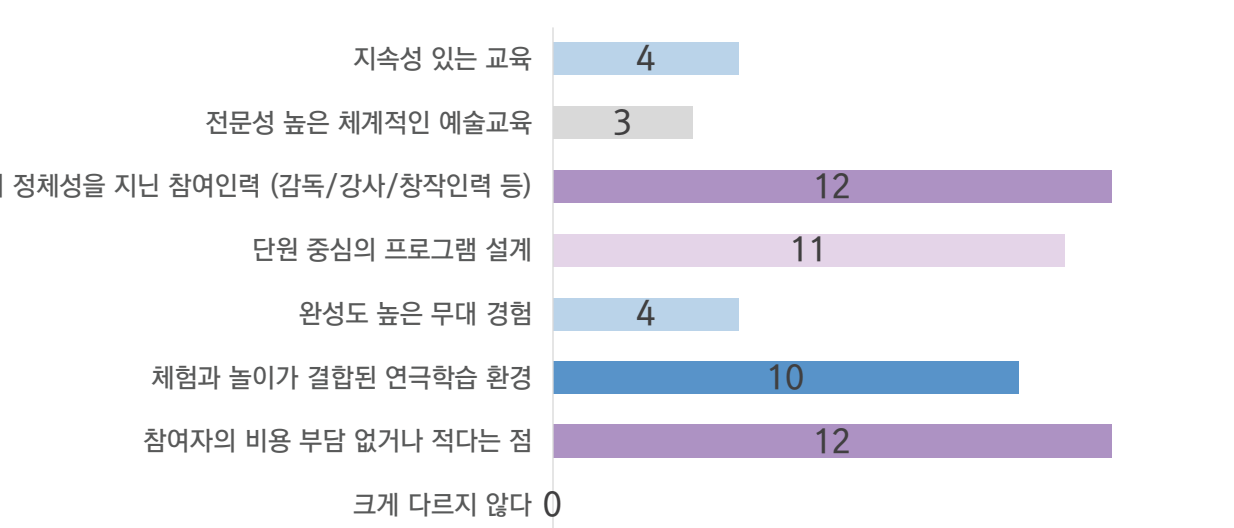
만족스러운 활동(두가지 선택)



꿈의 극단 안산 프로그램에서 가장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선택해 주십시오.



가장 뚜렷하게 구별되는 장점(두가지 선택)



## 내년도에 꿈의극단 안산2기에서 다뤄보고 싶은 주제나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사생활, 청소년들이 제일 잘 알아야하는 권리

반려동물, 좋은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꿈, 청소년 시기 꿈은 매우 중요하고 꿈이 없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로맨스, 로맨스 연극이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청소년들은 가족보다 친구를 더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상황 속 가족의 소중함을 풀어보고 싶습니다.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활동, 장난기 많던 친구들도 모두 그 시간만큼은 어른이 잠시 될 수있는 시간이기에 선정했습니다.

판타지물/모험이야기, 재밌을 거 같습니다.

불안과 압박 속에서의 성장

사회생활,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경험해본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꿈의극단안산과 관련하여 귀하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연령대를 만나  
같이 협업하여 활동하는게  
좋았고 어렸을 때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  
선배들을 만나 친해졌다면  
의미있었을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다 좋았는데 캐스팅 할 때  
오디션을 봤어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꿈의 극단 안산을 하면서  
친구도 더 많이 사귀고  
좋았습니다.

꿈의 극단 덕분에 매일매일이 즐거웠고  
무대에 올라 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꿈의  
극단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회가  
계속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년동안 너무  
재미있었어요.  
내년에  
또 할게요.

후반으로 갈수록  
단원들과 강사들의  
사이가 끈끈해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연극에 쉽게 접근하고  
여러 경험을 쌓기에  
적합하다 생각합니다.

제 주말을  
행복하게  
만든 곳이에요♡

꿈의 극단은 나의 진로의  
전환점입니다.

무기력하던 주말이 활기차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완성된 공연  
또한 매우 좋은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도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꿈의 극단 안산은 연극 활동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모여 비교적 잘 갖춰진 환경 속에서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홍보

꿈의 극단 안산 인스타그램 계정  
(@dreamtheater\_ansan)  
게시물 33개  
릴스 11개  
최고 조회수 7,883회



안문재PD 카드뉴스



안문재PD 릴스



안문재PD 인터뷰 (블로그)  
공연 추천 / 단원 인터뷰 / 연출 인터뷰



안문재PD | 청소년이 만든 진짜 무대! <내모난 반짝임, 넷>이 온다!  
| 꿈의극단 안산 | 청소년창작극 | 안산문화재단의전당

안산문화재단 블로그  
공연 정보



부 록 B. 홍보실적

|             |     |
|-------------|-----|
| - 온/오프라인 홍보 | 143 |
| - 언론 보도     | 147 |
| - 영상결과물     | 148 |

오프라인 홍보

안산국제거리극축제 등 관내 축제 내 배포



사업 소개 배너



오프라인 홍보

하계 단원복



동계 단원복



특별강의 배너



안산 꿈극 초대의 날 배너



정기공연 배너



정기공연 포스터



정기공연 포토월 현수막



오프라인 홍보

정기공연 극장 내부 현수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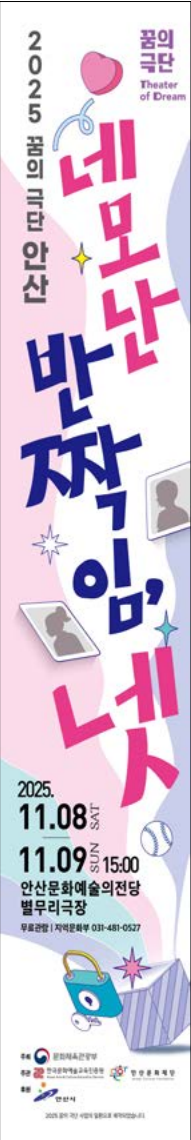
정기공연 메인웹배너



정기공연 리플릿



정기공연 전시관  
외벽 현수막



정기공연  
상세페이지



보도자료

| 연번 | 보도 날짜        | 매체명     | 기사제목                                               |
|----|--------------|---------|----------------------------------------------------|
| 1  | 2025. 3. 18  | 쿠키뉴스    | 안산문화재단, ‘꿈의 극단 운영’ 거점기관 선정...국비 4억 확보              |
| 2  | 2025. 3. 18  | 경인매일    | 안산문화재단, 꿈의 극단 운영사업 거점기관 선정                         |
| 3  | 2025. 3. 18  | NSP통신   | 안산문화재단, ‘꿈의 극단 운영사업’ 거점기관 선정...5년간 4억 확보           |
| 4  | 2025. 3. 18  | 글로벌이코노믹 | 안산문화재단, ‘꿈의 극단 운영사업’ 거점기관 선정                       |
| 5  | 2025. 3. 18  | 천지일보    | 안산문화재단, ‘꿈의 극단’ 선정...국비 4억 확보                      |
| 6  | 2025. 3. 18  | 머니투데이   | 안산문화재단, 문체부 '꿈의 극단' 선정...취약계층 청소년 공연 확대            |
| 7  | 2025. 3. 18  | 기호일보    | 안산문화재단,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강화...<br>‘꿈의 극단’ 신규 거점기관 선정     |
| 8  | 2025. 3. 18  | 안산뉴스    | 안산문화재단 ‘꿈의 극단 운영사업’ 거점기관 선정                        |
| 9  | 2025. 9. 16  | 글로벌이코노믹 | 안산문화재단, ‘꿈의 극단 안산’ 청소년 교육연극 사업 운영                  |
| 10 | 2025. 12. 18 | 시민일보    | 안산문화재단, ‘2025 꿈의 극단 안산’ 1년 성과 빛나다                  |
| 11 | 2025. 12. 18 | 글로벌이코노믹 | 안산문화재단, ‘꿈의 극단 안산’ 1년 성과 빛났다... 청소년 예술교육의<br>모델 제시 |
| 12 | 2025. 12. 18 | NSP통신   | 안산문화재단, ‘2025 꿈의 극단 안산’ 1년 성과 빛나다                  |
| 13 | 2025. 12. 18 | 천지일보    | 안산문화재단 ‘2025 꿈의 극단 안산’ 1년 성과 공개                    |
| 14 | 2025. 12. 18 | K-컬처    | 안산문화재단, ‘2025 꿈의 극단 안산’ 1년 성과 빛나다                  |
| 15 | 2025. 12. 18 | 시민행정신문  | ‘2025 꿈의 극단 안산’ 1년 성과 빛나다 - 안산문화재단                 |
| 16 | 2025. 12. 18 | 안산뉴스    | ‘꿈의 극단 안산’ 청소년 예술교육 빛나다                            |
| 17 | 2025. 12. 18 | 뉴스테이지   | 안산문화재단, ‘2025 꿈의 극단 안산’ 1년 성과                      |
| 18 | 2025. 12. 18 | 서울매일    | 안산문화재단 ‘꿈의 극단’, 5년 국비 기반 청소년 연극교육 뿌리내린다            |

영상결과물

공연 실황 영상



2025 꿈의 극단 안산

- 주 최 문화체육관광부
- 주 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재)안산문화재단
- 후 원 안산시
- 발 행 처 (재)안산문화재단
- 발 행 인 대표이사 김태훈  
문화예술본부장 김진희
- 사 업 총 괄 지역문화부장 황우자
- 기획·운영 지역문화부 김민정
- 코디네이터 지역문화부 박민지
- 운 영 지 원 지역문화부 김은정, 하혜진, 최푸름  
무대예술부 정홍순, 이승훈, 김빈규, 강수룡, 김지호, 최영환

하이라이트 영상



촬영 엠카이브  
디자인/인쇄 플러스비전  
발행일 2025. 12

© (재)안산문화재단 (1535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  
T. 031-481-4000 F. 031-481-0520 W. www.ansanart.com  
※ 본 자료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안산문화재단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5 꿈의 극단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